

明代 兀良哈·女眞의 成長과 遼東都司의 危機

南 義 鉉

강원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序 論

明代の 遼東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東으로 朝鮮을 견제할 수 있고, 西로는 山海關과 접하여 京師와 연결될 수 있으며, 南으로는 渤海灣과 연결되어 山東 등 동남해안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北으로는 遼河를 넘어 몽골의 사막·초원과 마주하고 있어서, 당시 초원지역에서 세력을 잡고 있던 兀良哈 三衛와 女眞과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四通八達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明代の 遼東은 萬里長城 지역과 더불어 明王朝의 유지를 위해 가장 먼저 선점하고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明朝는 遼東의 先占을 위해 遼東에 遼東都司(遼東都指揮使司)²⁾를 설치하여 軍政중심의 정치를 진행하면서 遼東의 지배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다.

明朝의 遼東政策은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몇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衛·所·城堡·烽燧臺(墩臺)·城池 그리고 遼東邊牆의 修築을 통한 군사적 방어를 시도하였다. 둘째 屯田의 經營, 軍需供給과 商業의 발전을 위한 海運과 河運의 개설 그리고 驛路網의 정비를 시도하였다. 셋째는 政治적으로 주변 諸勢力과 지속적인 朝貢關係의 유지, 賞賜, 懷柔, 馬市의 개설 등의 방법을 통하여 朝鮮·몽골·女眞 등의 주변민족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明代 遼東支配의 中樞라고 할 수 있는 遼東都司는 遼東의 일부만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軍事·經濟·政治의인 方面의 전략은 주로 오늘날의 遼寧省에 해당하는 좁은 지역에 제한되어 진행될 수 밖에 없었고, 永樂帝(1403~1424) 이후에는 그 遼東都司 防禦體制마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軍事的인 側面에서 衛所制度和 城堡中心의 軍事戰略은 永樂帝의 몽골친정 이후 소극적인 방어전략으로

논문접수일 : 2005년 9월 16일, 게재확정일 : 2005년 9월 30일

2) 明代 遼東都司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徐桂榮, 「明代遼東都司諸衛轄所考」(『遼寧人學學報』, 1992), 董萬崙의 「明代三衛初設地研究」(『北方文物』, 1994年, 第3期, 總第39期), 鄧富生の 「試論明朝初年的海防」(『中國邊疆史地研究』, 1995年 第1期), 李三謀의 「明代遼東都司衛所的農耕活動」(『中國邊疆史地研究』, 1996年 第1期), 朱誠如, 「明遼東都司二十五衛建置考辨」(『管窺集』, 紫禁城出版社, 2001), 張上尊의 「明代遼東都司軍政管理體制及其變遷」(『東北師大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02年 第5期), 奇文瑛의 「論明代開原的地位和作用」(『滿族研究』, 2002, 第3期)

그러나 遼東과 관련하여 축적된 중국의 저서와 논문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明代 遼東都司·奴兒干都司 등을 치밀한 고증없이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遼東都司에 관련된 성과물 역시 遼東都司와 衛所의 設立過程 등을 다루고 있지만 明代 遼東都司의 歷史의 性格과 變化過程,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의 실패와 명의 멸망에 끼친 영향 등 遼東都司의 歷史의 이고 綜合的인 평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과물은 보기 힘들다. 奴兒干都司의 경우 明 初期 女眞지역에 설치되었지만 永樂 年間 이후가 되면서 그 영향력을 상실하여 都司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奴兒干都司가 영향력을 잃게 되는 원인과 한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女眞세력은 모두 明의 羈縻衛所에 편입된 세력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으며, 명 시기 내내 黑龍江 지역까지 명의 영향력이 지속되었던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있다.

전환됨으로써 그 한계를 들어내기 시작하였다. 永樂정권 이후 더 이상의 몽골親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女眞을 제어하는데도 점차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명이 몽골과 女眞을 근본적으로 방어하고자 세웠던 새로운 전략체계 곧 遼東邊牆 역시 축조된 이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遼東都司 防禦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遼東都司의 방어력이 약화됨에 따라 明을 끊임없이 위협하던 몽골과 女眞³⁾세력은 더욱 세력을 확장하여 요동도사 지역으로 南下하기 시작하였으며, 遼東都司는 북변의 방어에서 힘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明代의 9邊은 그 방어지역이 길고 明의 군사력이 遼東을 포함한 9邊으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력을 遼東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다. 遼東都司 역시 永樂시기를 제외하면 그 관할지역(지금의 遼寧省 일부지역)을 벗어나 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으며, 兀良哈 3衛와 접한 北邊·吉林·黑龍江 지역이 明의 판도에서 이미 벗어나 있었다.

또한 요동도사는 이미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屯田開發은 宣德·正統시기를 맞이하면서 屯田생산량이 조금씩 감소하여 식량문제의 곤란에 직면하였다. 遼東都司의 人口 역시 明中·後期로 갈수록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인구의 감소는 둔전개발과 衛所체제를 와해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외에도 遼東의 지리적 특수성, 遼東부역의 과중함, 전염병, 홍수, 가뭄, 폭설, 해충 등의 자연재해의 위협, 人口壓力的 부재, 遼東都司의 인구증가정책의 실패 등 여러 요인이 遼東都司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논문은 '兀良哈 3衛의 南遷', '建州衛의 興起와 遼東의 危機', '遼東都司와 建州部の 衝突' 등 遼東都司를 둘러싼 대외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明代 遼東都司의 지배권 약화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외적인 問題는 곧 '몽골 兀良哈의 남침과 女眞의 성장'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들의 변화 과정은 곧 遼東都司가 遼東邊牆을 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곧 遼東都司의 防禦戰略體系의 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兀良哈는 강성한 東·西몽골에 밀려 남침하면서 遼東都司를 공격하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변하였는데, 兀良哈 3衛의 변화 상황은 요동도사의 방어체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것이다. 實例로 明이 수축한 遼河套 邊牆은 兀良哈를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길이가 700여 리에 달하는 'U'字형의 遼河套邊牆이다. 遼東都司는 이 遼河套邊牆의 불합리한 방어선을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遼河套 지역을 방치하게 되고 그 틈을 타 兀良哈이 이 지역으로 대거 남하하여 결국 遼東都司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곧 그들의 움직임은 遼東都司와 北邊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

'女眞 역시 正統년간 이후 급격히 성장하면서 明代 遼東都司를 위협하는 중요한 세력으로 변해갔다. 建州衛로의 편입과 衛印爭奪, 建州 3衛로의 분리와 연합 등의 과정은 建州女眞이 遼東의 새로운 주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며, 이는 곧 遼東都司가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전략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들의 이동과 成長 그리고 明과 朝鮮 그리고 女眞 3세력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明代 遼東都司를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3) 중국의 연구성과 중 1990부터 최근까지 朝鮮과 관련된 女眞관계 논문은 다음과 같다. 王鍾翰의 「明代女眞人の 分布」(1997), 姜龍範의 「洪武至永樂初圍繞女眞問題所展開的中朝交涉」(『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8, 第4期), 李善洪의 「童猛哥帖木兒與朝鮮關係述略」(『史學集刊』, 1999年 第3期), 廟威의 「建州·毛憐二衛設置後同李氏朝鮮的關係」(『東疆學刊』, 2001年 9月 第18卷 第3期), 王臻의 「明代女眞族與朝鮮的邊務考述」(『延邊大學學報』, 2002年 3月 第35卷 第1期), 奇文瑛의 「論明朝內遷女眞安置定策」(『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年 第2期 第29卷), 樂凡의 「明代女眞族的貿易關係網及社會效應」(『北方文物』, 2000年 第1期), 達力扎布的 「有關明代兀良哈三衛的幾個問題」(『明清蒙古史論考』, 民族出版社, 2003).

본 논문은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兀良哈의 南遷과 女眞의 移動과 成長過程을 과정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明代 遼東都司 支配權의 限界를 이해하는 기초로 삼고자 한다.

1. 兀良哈 3衛의 南遷과 遼河套의 危機

明代 兀良哈 3衛 세력은 몽골족의 일부로 동·서몽골(일반적으로 동몽골 세력은 ‘達靼’으로, 서몽골 세력은 ‘瓦剌’로 기록되고 있다)과 明朝사이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몽골지역의 嫩江지역을 중심으로 명과 몽골지역을 모두 접할 수 있는 중간지역에 위치하였으므로 양자의 사이에서 多元的 外交를 전개하였다. 명과 동·서몽골 역시 각각 兀良哈를 자기세력으로 끌어들이기위해 관심을 둘 수 밖에 없었다. 명은 兀良哈를 이용해 遼東都司를 방어할 수 있는 울타리로 삼고 나아가 동·서몽골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두고자 하였다. 동·서몽골은 兀良哈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명과의 관계를 독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나아가 海西 등의 女眞세력을 자기세력으로 끌어들이어 장차 遼東을 통일하고 중원을 차지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다.

明朝는 초기 이들 兀良哈 지역에 兀良哈 3衛⁴⁾를 설치하여 大寧都司의 관할로 삼았다.⁵⁾ 명에 흡수된 후 兀良哈 3衛는 그 세력이 강하지 못하여 명과 동·서몽골 등을 상대로 수시로 태도를 변화시키며 그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다. 동·서몽골과 혼인정책을 통해 연합을 피하기도 하고, 동쪽의 海西女眞과 함께 遼東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또한 명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명에게 戰馬를 제공하고 몽골지역의 정세와 정보를 제공하며 이권을 획득하는 등 多元的 외교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였다. 특히 지리적으로 兀良哈과 직접 접해있는 동몽골은 兀良哈를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고자 여러차례의 공격과 초무를 반복하였다.

서몽골 역시 동몽골과 각축을 벌이며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는데, 동몽골과의 싸움에서 점차 우위를 차지하여 兀良哈를 공격하는 주요한 세력이 되기도 하였다. 가장 강성했던 시기는 正統년간에 해당하는 也先(에센)의 시기이다.

4) 兀良哈 3衛 중의 하나인 泰寧衛의 지휘사를 처음 담당한 사람은 阿扎失里인데 그는 칭기즈汗의 동생 鐵木哥斡赤斤(태무계오치킨)의 후예이다. 泰寧은 元朝가 이전에 설치한 행정기구로 遼陽行省의 泰寧府에 속해있었으며 후에 泰寧路로 바꾸었으며 아래 泰寧縣을 두었다. 遼·금시기는 泰州로 불리기도 하였다.

福余衛에서 처음 지휘사를 담당한 자는 海撒男答奚였는데, 그에 관한 기록은 알 수가 없다. 福余衛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嫩江 유역의 지류인 瑚裕爾河(烏裕爾河)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로 元代 鐵木哥斡赤斤의 封地에 해당한다.

朵顏衛에서 처음 지휘의 직을 담당했던 사람은 脫魯忽察兒이다. 朵顏衛가 처음 설치된 지역은 朵顏山으로 지금의 洮兒河와 歸流河의 상류로 지금의 烏蘭浩特 부근이다. 朵顏衛의 동부는 泰寧衛이며, 동북부는 福余衛로, 泰寧衛와 福余衛는 모두 嫩江유역에 위치하는데 이 朵顏衛는 비교적 산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여 가장 거칠고 용맹스러운 기질이 있다. 兀良哈 3衛 지역은 상당 부분 축목을 진행하며 이동성이 강한 유목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明太宗實錄』 洪武 22年 5月 癸巳.

5) 兀良哈 3衛의 최초의 위치는 嫩江유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明의 大寧都司가 위치한 大寧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들의 거주지역과 大寧都司 사이에는 1천 여리의 거리를 두고 있었으므로 명은 兀良哈의 방위에 비교적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유목민족이었으므로 遼東의 농업과 수렵 어로 등에 종사하는 女眞족과는 구별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유목경제형태를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요동정세에 변동이 생기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정착지 역시 수시로 변화될 수 있었다.

이후 燕王은 황제에 오른 후 大寧都司의 위치를 保定으로 이동하면서, 처음 설치되었던 大寧지역은 완전히 방치되었다. 이로써 兀良哈에 대한 통제는 더욱 불가능하였으며, 오히려 兀良哈의 추장들이 경제권을 획득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명의 관직과 衛印을 받는 등 명과 빠른 교류를 지속하였다. 1404년(永樂 원년) 11월 兀良哈 두목 哈兒兀歹가 그 부속 脫忽思 등 230 여명을 파견해 내조하고 貢馬를 가지고 왔으며, 명은 그들을 후대하였다. 명은 兀良哈 지역에 사신을 파견해 그들을 衛所체제에 편입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1404년(永樂 2) 永樂帝는 지휘 蕭上都를 파견해 兀良哈 3衛의 294인에게 관직을 수여하였다. 곧 脫兒火察를 都督僉事로, 哈兒兀歹를 도지휘동지로 삼고 朵顏衛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事安出과 土不申은 모두 都指揮僉事로 삼고 福余衛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胡刺班胡를 指揮僉事로 삼고 태녕위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각 衛所에서 추천한 357명에게도 관직을 賜與하였다.

올랑합을 둘러싼 동·서몽골의 成長과 角逐은 兀良哈의 南遷을 부추겨 明의 邊境을 불안정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兀良哈의 남하는 遼東都司의 변경지역이 약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곧 兀良哈의 南下는 遼東都司의 危機를 알리는 신호였던 것이다.

兀良哈는 초기부터 明과의 관계를 통해 면직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쉽게 제공받고자 하였다.⁶⁾ 당시 兀良哈는 동·서몽골이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과 교류를 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생활필수품이 부족했다. 생활필수품의 부족은 兀良哈이 明과 조공을 맺을 수 밖에 없었던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⁷⁾ 兀良哈 3衛에 소속된 지역이외에 堅河(根河), 海刺兒河(海拉爾河), 關連磨連(呼倫湖), 阿魯兀納磨連(滕替 鄂嫩河), 能木河(嫩河), 土刺河(土納河) 등의 몽골인도 교역을 위해 明의 邊境으로 몰려들었다.⁸⁾ 明朝는 兀良哈를 비롯한 이들을 위해 遼西의 廣寧 등에 馬市를 설치하고 互市무역을 진행하였다.

1410년(永樂 8) 7월 遼東總兵官 巫凱는 廣寧衛의 지휘 盛寬 등이 兀良哈의 소수의 기병이 虹螺山으로 와서 유목하고 있음을 遼東都司에 보고하고 있는데, 虹螺山은 지금의 遼寧省 興城으로, 兀良哈 3衛의 유목지역이 遼東방어선과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兀良哈 3衛와 明朝와의 關係는 몽골지역의 상황에 따라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고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동몽골의 阿魯台는 兀良哈 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며 兀良哈는 동몽골과 연합하여 遼東都司의 邊境을 괴롭혔다. 明朝는 兀良哈의 反明 태도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여 일시적으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즉 兀良哈이 명조에 貢馬 3천필을 바치기도 하고, 泰寧衛 都督 阿只罕(阿散), 朵顏衛 都督僉事 脫兒火察, 福余衛 도지휘 事安出이 조공을 오기도 하였다. 兀良哈 3衛는 明朝와 동몽골 사이에서 수시로 실리를 위해 태도를 변화시켰다. 兀良哈의 이러한 태도는 조공의 횡수에서도 나타난다. 1414년~1422년 시기동안 福余衛는 明朝에 조공을 한 기록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朵顏衛는 1차례, 그리고 泰寧衛의 도독 阿只罕이 19년과 21년에 2차례 조공을 한 기록만을 보이고 있다.¹⁰⁾ 곧 兀良哈이 명과 조공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인접한 동몽골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명과의 관계는 수시로 변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명과 兀良哈과의 조공관계가 소원해 지자 永樂帝는 兀良哈를 동몽골과 분리시키기 위해 阿魯台를 親征 하였으며 친정에서 돌아오면서 朵顏衛의 屈裂河(歸流河)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兀良哈 지역을 통제하고자 하였다.¹¹⁾

1425년(洪熙 원년)에도 兀良哈 3衛는 福余衛를 선두로 조공을 왔으며 兀良哈 3衛 모두 遼東에서 말을 교역하기를 희망하는 등 朝貢·馬市·襲職 등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였다.¹²⁾ 그러나 永樂帝 사후 직접적인 ‘몽골親征’이 불가능해짐으로써 明朝는 大寧지역을 더욱 방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곧 大寧 지역과 遼河套 지역으로 兀良哈 세력이 대거 남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마침내 1428년(宣德 3)

6) 『明太宗實錄』 永樂 元年 5月 乙未. “來朝者悉授以官, 俾仍居本地, 歲時貢獻, 經商市易一從所便”.

7) 達力扎布, 「有關明代兀良哈三衛的機個問題」, 『明清蒙古史論考』, 民族出版社, 2003. 6, p.201.

8) 『明太宗實錄』 永樂 3年 10月 乙丑·己卯·庚寅; 永樂 4年 10月 癸巳; 永樂 5年 5月 乙亥, 11月 辛酉; 永樂 7年 3月 壬戌.

9) 『明宣宗實錄』 宣德 8年 7月 甲子. “廣寧衛指揮 盛寬等 領兵巡邏, 見虜騎二三十人 或 五七十人 或 三五百人, 云是福余 朵顏 泰寧 三位指揮千戶家屬往虹螺山牧放圍獵”.

10) 『明太宗實錄』 永樂 17年 12月 辛巳; 永樂 19年 丁月 乙酉.

11) 『明太宗實錄』 永樂 20年 4月 庚午. 屈裂河의 하류에 위치하는 泰寧衛는 공격하지 않았다. 泰寧衛는 계속 明朝에 조공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12) 『明太宗實錄』 永樂 22年 11月 乙亥.

兀良哈이 明朝 북부의 방어선에 해당하는 大寧 근처의 灤河(大寧의 서남쪽)지역까지 이동하여 말을 사육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兀良哈의 점진적인 이동은 그들이 遼東都司 지역으로 남침하여 邊境을 약탈할 수 있었기 때문에 明으로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宣德년간(1426~1434)에는 조금씩 남침하고 있는 兀良哈를 무력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遼東都司와는 먼 거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였다.¹³⁾ 兀良哈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과 방치는 예상대로 兀良哈의 침입으로 이어졌다. 1428년(宣德 3) 9월 兀良哈이 大寧으로 대대적으로 쳐들어왔으며¹⁴⁾ 宣德帝는 정예 3천여 기병을 보내 공격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宣德년간의 兀良哈 3衛는 남침하여 大寧부근에 출몰하며, 간헐적인 공격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西遼河나 遼河套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곧 大寧지역은 宣德년간까지도 兀良哈 3衛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느끼는 지역은 아니었으며 그들은 여전히 遼東都司 방어선 가까이까지 남침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29년(宣德4) 3월에는 朵顏衛 등의 두목 完者帖木兒 등이 내조하였는데 明朝는 그를 都指揮同知로 승직시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¹⁵⁾

兀良哈 3衛는 지리적인 위치상 동몽골 阿魯台와 충돌이 불가피하였다. 1432년(宣德 7) 8월 당시 遼東總兵官 巫凱는 兀良哈 3衛가 동몽골을 공격하였으나 阿魯台에게 패하였으며 兀良哈 3衛의 일부가 海西지역과 遼東변경으로 가속을 거느리고 도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兀良哈 세력은 阿魯台에게 쫓겨 일부는 遼東으로, 다른 일부는 女眞지역으로 흡수되었다.¹⁶⁾ 宣德년간 兀良哈 3衛가 동몽골과 충돌했을 경우 명은 더 이상 그들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으며, 兀良哈 3衛가 전란을 피해 遼河套 등 明朝의 변경으로 피해왔을 경우에도 유목생활을 허락해 주는 정도로 대처했을뿐 兀良哈에 대한 明의 통제력은 매우 약했다.¹⁷⁾

말하자면 永樂 ~ 宣德년간에는 소수의 兀良哈의 이동과 약탈이 있었지만 兀良哈의 기본적인 위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후 兀良哈를 빠른 속도로 南遷하도록 만든 것은 역시 서몽골이었다. 正統년간(1436~1449)은 서몽골이 大同을 비롯한 북변을 가장 빈번하게 침입한 시기인데, 그들의 침입은 北京 및 遼東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서몽골의 入貢者는 明 初期 50명 정도였으나 그들의 세력이 강할때는 入貢者가 2~3천명이 되기도 하였다. 明朝는 과도한 입공자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입공자 제한조치는 也先(에센)이 변방을 침입하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서몽골은 兀良哈를 통제하여 遼東에서 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1437년(正統 2) 11월 서몽골(瓦剌) 세력은 遼東북부까지 내려와 동몽골·兀良哈 3衛·女眞과 연합하여 遼東을 긴장시켰다.

1441년(正統 6) 12월에는 서몽골이 동몽골을 제압하면서 兀良哈 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서몽골과 兀良哈의 泰寧衛는 통혼을 통해 연합세력을 형성하였다.¹⁸⁾ 그러나 1447년(正統 12) 동몽골 也先(에센)의 동생 賽罕은 대대적으로 朵顏衛를 공격하여 朵顏衛의 지휘 乃兒不花를 죽였다.¹⁹⁾ 이러한 현상은 비록 兀良哈 3

13) 『明宣宗實錄』 宣德 3年 丁未 丁未.“其遵守法度，約束部伍，不許纖毫侵越，而朝貢如故，庶爾等父母妻子 安居無事，永享太平之福”.

14) 『明宣宗實錄』 宣德 3年 9月 辛亥.“兀良哈之寇萬衆侵邊，已入大寧，經會州將及寬河”.

15) 『明宣宗實錄』 宣德 4年 3月 丁未.“朵顏等衛頭目 完者帖木兒等 來朝貢馬，上嘉其誠，宥其前過，凡家屬被獲者，悉還之。升完者帖木兒爲指揮同知 余升秩有次”.

16) 『明宣宗實錄』 宣德 7年 9月 己未.

17) 達力扎布, 앞의 책, 2003. 6, p.203.

18) 『明英宗實錄』 正統 6年 12月 戊戌.

19) 『明英宗實錄』 正統 12年 5月 戊午.

衛가 나름대로 서몽골과 혼인관계를 맺는 등의 우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서몽골의 약탈을 막을 수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유는 서몽골은 정세 변화에 따라 兀良哈를 그들의 목적을 위해 적절히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遼東總兵 曹義는 泰寧衛의 사람들이 也先에게 패하여 大凌河 유역의 遼東都司 관할지역으로 와서 식량을 구걸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²⁰⁾ 兀良哈 3衛 중 福余衛만이 그나마 也先을 피해 腦溫江(嫩江)지역으로 도망하였다.²¹⁾ 명은 이들에 대해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하며 明의 세력으로 회유하고자 하였다.

명이 이처럼 兀良哈과 정치·경제적 제휴관계를 맺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몽골지역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이다. 明朝는 兀良哈 3衛가 긴급한 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규정된 關口이외에도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히 만들어주고 賞賜로서 후대하였다. 明朝는 兀良哈를 통해 몽고지역의 군사동향이나 긴급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오는 상당수의 몽골과 관계된 보고는 이들을 통해 입수된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다.²²⁾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변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兀良哈 3衛는 지리적인 위치상 동서몽골의 침입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유사시 남침하여 명의 변경을 소란스럽게 할 소지가 있었다. 명은 초기부터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며 동서몽골을 방어하는 울타리로 삼고자했기 때문에 올랑합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遼東都司의 방어체제가 점차 약화되어가는 상황에서 兀良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明朝의 兀良哈 3衛에 대한 明의 통제력이 강할 수 없었음을 설명해주는 것이며 兀良哈 3衛의 세습 관직 역시 일방적으로 명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대개 兀良哈에 의해 결정된 후 明에게 전달되고, 明朝는 큰 이의가 없으면 동의해 주는 정도에서 처리되었다.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明과 兀良哈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明과 兀良哈의 관계가 ‘藩屬關係’가 아니며, 오히려 兀良哈 3衛는 동·서몽골로부터 간섭과 위협을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예측성도 강했다고 볼 수 있다.

明朝의 대외정책이 가장 왕성하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永樂년간(1403~1421)에도 兀良哈 3衛는 서몽골의 鬼力赤과 동몽골의 阿魯台的 통제를 강하게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역시 明에 비해 동·서몽골이 兀良哈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²³⁾ 당시 교통의 요도인 哈密 역시 明朝와 조공을 하고 있었지만 哈密의 忠順王 安克帖木兒가 鬼力赤에게 독살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哈密가 明보다는 몽골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하겠다. 곧 安克帖木兒가 명과 관계를 맺는 등 몽골 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움직임이 그가 독살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²⁴⁾

兀良哈의 反明的인 태도에 대해 明朝는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戰馬 등의 공납을 강요하며 압력을 가하였지만 모두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다.²⁵⁾ 곧 兀良哈 3衛는 곧 사신과 말을 보내고 明과의 관계를

20) 『明英宗實錄』 正統 12年 7月 庚戌. “泰寧等衛達子, 在小凌河…… 爲也先所害, 逃散乞食, 愿以土物來易米糧”.

21) 『明英宗實錄』 正統 12年 9月 己酉.

22) 達力扎布, 「有關明代兀良哈三衛的幾個問題」, 『明清蒙古史論考』, 民族出版社, 2003. 6, p.202.

23) 永樂帝의 몽골親征 시기에도 兀良哈에 대한 明의 영향력이 일시적이고 형식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0만의 기병을 거느리고 몽골 토벌을 위해 출정했던 丘福은 本雅失里를 정벌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克魯倫河에서 전군이 북멸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이후 永樂帝가 수십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5차의 친정을 통해 동서몽골을 번갈아 가면 친정을 감행하였으나 추격전만 되풀이하고 말았다. 그리고 귀환하는 도중 兀良哈인 수십명을 잡아 명의 체제에 편입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몽골의 阿魯台에게 귀부하고 말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兀良哈 三衛가 그들의 실익을 위해 명과 형식적인 조공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실제 몽골의 통제를 더 많이 받고 있었음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4) 『明太宗實錄』 永樂 3年 3月 乙亥, 4月 庚辰.

호전시켰으나 이러한 明의 군사적 압력은 兀良哈과 몽골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예속관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오히려 明朝는 洪熙帝 시기부터 兀良哈이 邊患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²⁶⁾ 변방세력의 방어에 대해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明의 정책과 태도는 더 이상의 親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兀良哈과 더 안정된 관계를 통해 요동의 방어를 타리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후 변경을 침략하거나 포로로 잡았던 兀良哈 3衛의 가족들을 풀어주는 등의 유화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明朝가 兀良哈를 통제할 수 상황은 곧 동서몽골이 兀良哈에 대해 더 많은 간섭과 약탈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는 곧 衛印쟁탈사건으로 표면화되었다. 兀良哈 3衛 중 福余衛는 1425년(洪熙 元年)에, 朵顏衛는 1432년(宣德 7)에 각각 동몽골의 本雅失里에게 印信을 빼앗겼다. 후에 泰寧衛의 脫火赤 역시 本雅失里에게 衛印을 빼앗겼다. 이러한 衛印과 勅書 등은 明과 자유롭게 조공을 할 수 있는 신임장과 같은 것으로, 本雅失里는 衛印과 印信을 장악하고 兀良哈 3衛의 朝貢貿易을 통해 經濟的 利益을 독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明은 이러한 몽골의 상황에 대해 적절히 통제할만한 힘이 없었다. 本雅失里 이후에도 阿台汗과 阿魯台가 권력을 잡으면서 여전히 兀良哈 3衛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1432년(宣德 7) 동몽골과 兀良哈 3衛 사이에 衛印쟁탈 사건이 있는 직후 서몽골의 脫歡은 阿魯台를 공격하고 脫脫不花를 汗으로 세움으로써 兀良哈 3衛는 다시 서몽골의 통제를 받았다. 脫脫不花와 也先은 兀良哈 3衛를 위협하여 對明戰爭에 끌어들이려 하였다.

이처럼 동서몽골의 통제를 번갈아 받던 중 1454년(景泰 5) 朵顏衛의 도지휘 阿兒乞蠻이 哈刺 등을 明朝에 내조하였다. 당시 哈刺 등이 明에 올린 내용을 보면 당시 朵顏衛는 黃河母納지역과 白城지역으로 이동하였다. 黃河母納(현재 내몽고 巴顏淖爾盟 지역 동쪽 白湖부근이며 白城은 현재 烏蘭浩特부근)은 朵顏衛의 원거주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泰寧衛의 指揮가 明의 변경에 이주하여 살 것을 요청하였지만 明의 兵部尙書 于謙은 동의 하지 않았다.

景泰年間(1450~1456)에는 景泰帝가 陳懋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변경으로 밀려들어 온 兀良哈에 대해 북쪽 방어선 200리 밖에서 거주하도록하여 遼東都司의 울타리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고 변방에 명하여 그들이 明의 허락없이 遼東변방으로 근접해 오는 것을 엄히 통제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당시 兀良哈 3衛가 여전히 明의 遼東都司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²⁷⁾ 즉 景泰년간에도 兀良哈 3衛가 明의 북부 방어선에 들어와 거주한 세력이 있었지만 심가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후 1465년(成化 元年)10월에 遼東太監 李良이 泰寧·朵顏 2衛의 친여 명이 변방에 들어와 사냥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약탈이 우려된다고 보고하였다. 1477년(成化 23)에는 몽골의 침입으로 兀良哈는 다시 遼東변경으로 밀려 들면서 遼東都司에게 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⁸⁾ 이러한 兀良哈의 상황과 당시 吏科給事中 鄒文盛의 상주문을 분석해 보면 당시 兀良哈 3衛 등은 遼河套를 포함하여 遼東 북변 100여리 밖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분포지역 중에 주로 虹螺山(興城) 老虎林

25) 『明太宗實錄』 永樂 9年 12月 壬申. “昔兀良哈之衆爲達達抄掠, 不能安定, 乃相率歸附……我太祖設三衛……臣屬既久, 後竟叛去……比者 爾等爲本雅失里所脅, 掠我邊卒, ……今特遣指揮木答哈等諭意, 如能悔過, 則還所掠戍卒, 仍納馬三千匹贖前罪, 不然發兵誅叛, 悔將難追”.

26) 『明仁宗實錄』 永樂 22年 11月 乙亥.

27) 『明英宗實錄』 景泰 5年 6月 辛丑. “邊將常領軍馬于二百里內巡哨, 爾須嚴約下人, 無敵不許一人近邊……”.

28) 『明憲宗實錄』 成化 23年 6月 己巳. “聽爾家屬暫于近邊寄居, 靜將頭目人等, 仍在三四百里外駐扎防護, 其有伶仃孤苦者, 量給米布賑恤, 遺棄人口, 遇有親人認領, 給還完聚, 待事寧之日, 爾等仍回原衛, 保爾家業”.

(鐵嶺), 車輪坡, 刀背山 등의 지명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成化년간을 전후로 하여兀良哈 3衛가 遼東邊牆 가까운 곳으로 이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明 中期에 편찬된 『遼東志』 역시 兀良哈 3衛를 간략히 기록하고 있다. 錦州·義州로부터 遼河에 이르는 지역을 泰寧으로, 黃泥凹로부터 開原·鐵嶺에 이르는 지역을 福余로 기록하고 있는데,²⁹⁾ 이 기록은 明 初期 兀良哈의 위치와는 다른 것으로 곧 明 中期 兀良哈의 위치를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正德年間(1506~1521) 이후 兀良哈 3衛의 세력은 한층 약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몽골의 세력확장으로 올랑합을 위협하였기 때문이다. 兀良哈의 약화는 곧 무리들을 데리고 대규모로 남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대로 1509년(正德 4) 5월 兀良哈 3衛와 女眞의 都指揮僉事 滿蠻이 2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邊牆부근에 와서 몽골의 약탈을 피하고자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明朝는 2만 이상되는 인구를 한꺼번에 邊牆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변경밖에 흙담(土圈)을 축조하여 임시로 거주하게하고, 정세가 안정되면 다시 그들을 본거지로 보내 다시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결정을 하였다.³⁰⁾ 올랑합 세력이 대규모로 이동변장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이후에도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明代 後期로 갈수록 변경의 골치 아픈 문제가 되었다. 兀良哈 3衛는 명에게 꾸준히 입공을 하고 馬市에서 交易을 하고 있었지만 북변의 강대한 몽고부락에 통합되어가고 있었다. 嘉靖年間(1522 ~ 1566)에 이르러 몽골 연합군은 군대를 거느리고 남하하여 변방을 약탈했으며 三衛는 다시 達延汗(다연 한)을 계승한 몽골세력의 일부가 되어갔다. 이로써 三衛는 이제 兀良哈가 아니라 몽골에 통합된 ‘北虜’로 불리게 되었다.

II. 建州女眞의 成長와 遼東八站 威脅

1. 建州左衛의 南遷

‘靖難의 役’을 통해 帝位에 오르게 된 永樂帝는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여진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女眞초부를 통해 몽골정벌시 배후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마침내 女眞의 일부세력을 흡수하여 衛所體制로 통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建州衛는 1403년(永樂 元年) 11월에 설치되었는데, 阿哈出(於虛出)의 내조를 계기로 建州衛軍民指揮使司를 설치하여 그를 指揮使로 삼은 것이 그 시발이 되었다.³¹⁾ 建州衛를 시작으로 兀者衛 등 1409년(永樂 7)까지 115개의 女眞衛所를 설립하였다. 당시 建州女眞은 주로 吉林지역과 豆滿江 유역에 많이 거주하였으며, 朝鮮의 여진정책에 회유되어 많은 통제와 지원을 받고 있었다.

1422년(永樂 20) 建州衛와 毛憐衛의 일부는 遼東都司와 鴨綠江에서 가까운 渾江(婆猪江)지역³²⁾으로 남천하였다. 이들의 이동은 주로 兀良哈과의 충돌로 忽刺溫 野人들³³⁾이 建州를 압박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³⁴⁾ 당시 女眞의 상황으로 보아 경제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동한 측면도 있다고 할

29) 『遼東志』 卷7 「藝文」 ‘盧瓊東戍見聞錄’. “自寧前至喜峰近宜府曰泉顏, 自錦義歷廣寧至遼河曰泰寧, 由黃泥凹逾瀋陽鐵嶺至開原曰福余”.

30) 『明武宗實錄』 正德 4年 5月 戊戌. “聽于牆外要害處照常藏避, 不許踐我境內, 惊擾人心, 其鎮安等堡土圈, 果遠離邊牆, 基址如故, 許其老弱暫居, 事寧, 省令遠去駐牧”.

31) 『中國歷史地圖集釋文彙編』 東北卷,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88, p.238.

32) 渾江은 婆猪江으로, 鴨綠江으로 흘러드는 지류이다. 鴨綠江으로 흘러들면서 朝鮮의 국경과 접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으로 들어온 女眞은 세력이 성장하면서 朝鮮과 충돌은 불가피하였다.

33) 忽刺溫 野人은 松花江 지류인 呼蘭江 유역에 살던 海西女眞의 일파이다.

수 있다. 즉,

당시 女眞의 상황을 보면 朝鮮을 향하여 끊임없이 생활필수품 등의 경제적인 요구를 하고 있었으며 처음 거주하던 吉林의 開原지방은 朝鮮지역에 비해 경제적인 물자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식량의 부족은 그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永樂年間 女眞은 明의 초무정책에 회유되어 명과도 빈번한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女眞들은 京師와 遼東의 살기좋은 지역에 머무르기를 여러차례 요청하였다.³⁵⁾ 당시 그들이 거주하던 길림방면의 開原지방은 明의 遼東都司 내지 북경과도 비교적 멀리 위치하여 왕래가 매우 불편하였으며 남쪽의 遼東都司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지리적으로 많은 편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女眞은 遼東都司에서 멀지 않은 渾江유역으로 남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建州衛가 남천한 渾江 지역은 李顯忠의 아들 李滿住에 의해 관할되었다. 李顯忠은 이 당시 이미 죽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그의 이름 앞에 ‘故’자를 쓰고 있으며 이후 『明實錄』에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³⁶⁾ 그리고 1426년(宣德 6) 李滿住는 建州衛指揮使에서 都督僉事로 승직되었다.³⁷⁾

추측해보면 李顯忠이 죽은 것은 建州衛가 渾江유역으로 이전하기 전이며 죽기 전에 都督僉事의 직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建州衛가 渾江유역으로 남천한 일은 『朝鮮王朝實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곧 1425년(洪熙 元年) 平安道 觀察使의 馳報를 보면 野人 李滿住 등 173인이 江界에 이르렀으며, 童修甫 答 등의 206명이 閔延에 이르러 식량을 요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⁸⁾

渾江(婆猪江)의 위치는 吉林省 동남의 通化와 遼寧省 동부의 桓仁·寬甸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은 鴨綠江에서 멀지 않은 지역으로 朝鮮의 군사 증진인 閔延·江界와 아주 근접한 지역이다. 女眞이 渾江지역에 강대한 세력이 자리를 잡는다면 朝鮮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朝鮮은 그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渾江으로 남천한 이후 建州衛의 李滿住는 江界와 閔延을 대상으로 식량 등의 생활필수품을 요청하면서 朝鮮의 지방관을 만나려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였다.³⁹⁾ 그러나 당시 建州衛는 이미 明의 衛所에 편입되어 있었으며 渾江 유역에서 거주하는 건에 대해 明의 허락을 형식적으로 받고 있었으므로 朝鮮 역시 建州衛와 공개적으로 접촉하거나 함부로 간섭하거나 처리할 처지가 못되었다.

朝鮮은 여진의 움직임을 중앙에 계속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建州衛 남천후의 상황에 대해 대처방안을 마련해갔다. 建州衛는 渾江유역으로 이동할 당시 이미 분포범위가 매우 넓었으며 朝鮮과의 크고 작은 분쟁들을 통해서 朝鮮의 조정을 긴장시키기도 하였다.⁴⁰⁾ 1432년(宣德 7) 11월 建州衛의 李滿住가 朝鮮인 64명을 路上에서 잡아갔는데, 明의 宣德帝는 李滿住에게 칙서를 내려 朝鮮으로 그 인구를 돌려보낼 것을 명하였다. 다음해 建州衛는 明의 칙서에 따라 64인을 朝鮮 江界의 지방관에게 인도하였다. 1433년에도 李滿住가 400여 기병을 거느리고 閔延지방을 약탈하는 등 朝鮮의 변경을 자주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34) 『朝鮮王朝實錄』 世宗 5年 6月 癸酉. “猛哥帖木兒所居在達達軍馬路邊, 可于朝鮮地移居”.

35) 永樂시기 明의 餘塵에 대한 적극적인 초무는 그동안 女眞의 懷柔에 성공적이던 朝鮮을 긴장시켰다. 특히 永樂帝는 비교적 거리가 먼 豆滿江 유역의 女眞세력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 훗날 建州左衛에 해당하는 童猛哥帖木兒가 朝鮮으로 내조하여 왔으며, 朝鮮은 上護軍의 관직을 내리며 그를 크게 환대하여 돌려보냈다. 『永樂年間 明과 朝鮮간의 女眞問題』, 『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2002, p.172

36) 『明宣宗實錄』 宣德 6年 正月 辛巳. “建州衛故都指揮僉事李顯忠妻康氏及指揮僉使金家奴等六十九人貢馬及方物”.

37) 『明宣宗實錄』 宣德 元年 3月 辛丑. “承建州衛指揮僉使李滿住爲都督僉事 襲父職”.

38) 『朝鮮王朝實錄』 世宗 7年 正月 己卯. “野人李滿住等百七十三名渡江界, 童修甫答等二百六名到閔延, 俱以請糧爲辭, 留連不還”.

39) 『朝鮮王朝實錄』 世宗 7年 3月 丁亥.

40) 『朝鮮王朝實錄』 世宗 15年 2月 己亥. “吏曹左參判金益精曰, …… 獨念西自婆猪, 東至于海, 野人之居, 多則百餘聚, 小則數十戶, 厥類非一, 同惡相濟”.

朝鮮은 이러한 女眞의 행위에 대해 무력으로 대처하였다. 곧 당시 평안도 절제사 였던 崔潤德은 군사력을 이용하여 10 여명의 아인을 사로잡았으며 京畿道와 忠淸道에 분치하였다.⁴¹⁾ 당시 朝鮮은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에서 일어나는 女眞과의 갈등과 충돌을 명에 통보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

1436년(正統 원년) 建州衛 都指揮 李滿住는 渾江(婆猪江) 유역에서 草河부근으로 옮기고 싶다는 뜻을 遼東都司에 전하였다. 이러한 李滿住의 계획은 遼東總兵 巫凱에게 전달되었다. 명 조정은 당시 이 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으므로 巫凱를 통해 변방의 상황과 그들의 동태를 잘 살펴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⁴²⁾ 당시 女眞의 李滿住는 草河유역에 거주하기 위하여 男古納哈를 보내 조공품을 보내고 40여 명을 송환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遼東總兵 巫凱는 女眞이 草河 유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遼東都司가 설치된 遼陽으로부터 草河까지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 몽골로 인한 遼東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建州衛를 가까운 곳에 둔다는 것은 또다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草河는 遼東八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므로, 建州 毛憐 등이 세력을 형성한다면 朝鮮과 明의 使行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로써 명과 朝鮮의 외교에 걸림돌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李滿住가 草河유역으로 이주하려는 목적은 다양한 시각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忽刺溫의 침입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이동일 수 있다.⁴³⁾ 둘째는 당시 朝鮮이 豆滿江과 鴨綠江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많은 女眞지역을 토벌하였으므로 朝鮮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당시 朝鮮은 世宗시기로 두만강 鴨綠江 방면의 女眞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초무하고 있었으며, 鴨綠江을 건너 桓仁縣의 兀刺山城(현재의 五女山城, '우리산성'이라고 함)까지 공격하여 그들의 본거지를 급습하였다. 즉 女眞은 朝鮮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셋째로, 草河유역은 명의 방어선과 접하고 있었으므로 朝鮮과 몽골 등의 침입을 받을시 명의 지원과 보호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그들의 거주지로 삼고자 하였던 목적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명의 반대로 女眞은 草河유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渾河의 上流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곧 1438년(正統 3) 渾河의 上流에 있는 蘇子河 유역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은 훗날 後金이 성장하는 초기 요충지인 興京(赫圖阿剌)⁴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당시 建州衛와 함께 毛憐衛도 남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毛憐衛는 建州部를 구성하는 중요한 衛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建州衛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毛憐衛의 수령은 撒達達斯里인데, 1435년(宣德 10)에 建州衛의 李滿住와 함께 忽刺溫部가 자신들을 겁락한 사실을 명에 상주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李滿住와 함께 南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會寧 建州左衛의 멀지않은 곳에 毛憐衛가 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곧 毛憐衛가 남천한 이후에도 여전히 豆滿江 유역의 會寧 등에 다른 毛憐衛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女眞의 습속상 가능한 일이다. 곧 建州衛·建州左衛·毛憐衛 등은 일종의 정치조직이자 혈연조직으로 상호간의 구속력이 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衛所체제에 편입되었지만 명의 통제를 강하게 받은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속들끼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또한 이동을 원하지 않는 부속들은 현지에 그대로 남아서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毛憐衛 역시 이동의 과정 중에 두 세력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두만강 유역까지 분포되어 있던 建州女眞

41) 『朝鮮王朝實錄』, 世宗 15年 5月 丁巳, 6月 乙酉.

42) 『明英宗實錄』, 正統 元年 潤6月 壬午. “今得建州衛都指揮僉事李滿住奏, 原奉恩在婆猪江住坐, 近被忽刺溫野人侵害, 欲移居遼陽草河, 朕未知有無防碍, 爾等宜計議安置處所, 毋弛邊備, 勿欠弛情.”

43) 『明宣宗實錄』, 宣德 10年 2月 戊申.

44) 훗날 朝鮮의 會寧지방에서 遼東으로 도망 온 상당수의 女眞인이 興京지역으로 들어와 혼거함으로써 建州衛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남침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會寧지역에 毛憐衛 등의 女眞세력도 남아있었다. 따라서 朝鮮이 평안도 절제사를 시켜 이전에 毛憐衛로부터 획득한 물건을 그들에게 돌려줄 때 撒滿答斯里리가 속히 ‘本處’로 이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本處’는 남침하기 이전의 곳으로 남침 후에도 원래 거주하던 會寧지방에 상당한 수의 毛憐衛 사람들이 남아 있었음을 추측하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그리고 1423년(永樂 21) 4월 建州左衛는 朝鮮의 會寧지방으로 들어오려 하였다. 建州左衛의 童猛哥帖木兒가 會寧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당시 朝鮮은 좋아할 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童猛哥帖木兒는 일찍이 朝鮮으로부터 印信을 받고, 朝鮮의 境內인 阿木河 지방에서 20여 년 동안이나 살다가 배반하고 명나라로 돌아갔었는데 이제 또 명나라를 배반하고 朝鮮의 변경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朝鮮의 변방을 소란스럽게 할 수도 있으며 많은 양의 생활필수품을 제공해야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동년 6월 童猛哥帖木兒는 직접 5백 23호를 거느리고 경원부로 왔으며 阿木河에서 식량을 요청하며 거주하기를 원하였다.⁴⁶⁾ 또한 당시 明에 대해 매우 위협적이던 楊木答兀도 또한 이곳으로 피해오고 있었는데, 그는 管下 5백여 호를 거느리고 豆滿江 밖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이후에 올 사람도 5백여 호나 되었다. 즉 상당히 많은 女眞세력이 다시 會寧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⁴⁷⁾

이러한 童猛哥帖木兒의 회환에 대해 朝鮮은 明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당시 阿木河 지역은 인구가 희소하고 방어시설과 군사력이 취약한 곳이었기 때문에 朝鮮 조정은 이 지역이 그들에 의해 약탈당할 것을 염려하여 방어를 강화하였다.⁴⁸⁾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량의 식량과 소금 등의 생활필수품을 제공하여 그들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童猛哥帖木兒가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것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었다. 당시는 女眞의 추장에 불과하였지만 지금은 明으로부터 임명된 지방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그는 親明의 태도를 보이면서⁴⁹⁾ 1426년(宣德 元年)에 都督僉事로 승직하기도 하였다.⁵⁰⁾ 1433년(宣德 8)에는 童猛哥帖木兒는 右都督에, 그 동생 凡察는 都指揮使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명의 사신이 살해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楊木答兀에게 납치된 사람을 송환시키기 위해 온 明使 2명이 兀良哈과 연합하고 있던 兀狄哈 여진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明朝에 충격을 주었다. 더욱이 親明의 태도를 취하던 建州左衛 역시 楊木答兀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建州左衛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1433년 10월 遼東都指揮使 배준은 建州左衛의 도움을 받으며 阿木河 지역을 초무하였다. 이 과정에서 楊木答兀은 명에 협조를 한 建州左衛에게 양심을 품고 七姓野人 등 각처의 야인 8백여 명을 규합하여 建州左衛의 童猛哥帖木兒·凡察의 집 등을 포위하고 불을 질렀다. 이 싸움에서 童猛哥帖木兒·權頭(阿谷, 도는 阿古) 등은 모두 살해되고, 부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다.⁵¹⁾ 곧 建

45) 『朝鮮王朝實錄』 世宗 16年 5月 乙未.

46) 『朝鮮王朝實錄』 世宗 5年 4月 乙亥, 6月 癸酉.

47) 『朝鮮王朝實錄』 世宗 5年 6月 丙子.

48) 『朝鮮王朝實錄』 世宗 5年 12月 戊午, 6年 2月 癸卯. “傳旨于 咸吉道 都節制使曰 …… 童猛哥帖木兒 楊木答兀 擲下人或三四十或五六十, 相繼而來, 以國家有限米布, 安得人人而給之哉? 若又丐乞於貧窮民家, 則彼此俱餓矣. 且慶源 鏡城 龍城 等處, 野人入寇, 深可慮也. 其各里居民, 并令入堡, 使當番留防軍及守城軍常着甲冑, 以備侵突”.

49) 『明太宗實錄』 永樂 22年 12月 甲子. 이후에도 1428년 1429년에도 각각 建州左衛의 조공기록들이 보이고 있다. 1432년에는 그 동생 凡察이 그리고 1433년(宣德 8)에는 童猛哥帖木兒의 마지막 북경으로의 조공이 이루어 지고 있다.

50) 『明仁宗實錄』 洪熙 元年 12月 丁亥, 宣德 元年 正月 乙亥.

51) 『朝鮮王朝實錄』 世宗 15年 11月 乙巳. “於十月十九日卯時分起程間, 有楊木答兀, 糾合各處野人, 約有八百餘名, 人馬各被明甲到來. 猛哥帖木兒 凡察 阿古歹都等家, 并當職營寨, 圍繞房屋, 放火燒毀. 因至申時, 見得 阿古 大門燒毀, 及攻開墻垣, 賊人入內, 將猛哥帖木兒 阿古等男子, 俱被死殺, 婦女盡行搶去”. 멩가첩목아의 죽음은 建州左衛에 큰 충격적 사건이었으며 훗날 建州左衛가 渾河유역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淸史에서 청의 건국자 누루하치의 조상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猛特穆’

州左衛는 會寧으로 온 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童猛哥帖木兒의 사후 朝鮮은 신속하게 會寧(阿木河) 지역에 軍鎮의 설치를 진행하였다. 楊木答兀의 성장, 그리고 朝鮮의 군사력 강화 등은 會寧의 建州左衛에게 또다른 위협이 되었다. 위협을 느낀 建州左衛의 凡察와 童山 등은 마침내 1435년(宣德 10) 會寧지역의 建州左衛와 建州衛의 무리를 婆猪江 유역으로 이동하여 婆猪江의 李滿住와 회합하겠다는 뜻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보는 동년 2월 함길도 병마도절제사가 李滿住와 凡察에게 내린 명 황제의 勅書 2통이 도착함으로써 알려졌다. 칙서의 내용은 먼저 建州衛都指揮 李滿住에게 建州左衛 都督 凡察 등이 대·소관과 인민 등, 그리고 百戶 棗火 등 50가구를 영솔하고 婆猪江 유역으로 와서 毛憐衛 都指揮 不兒罕 등과 같이 함께 거주하는 것과, 建州左衛 都督僉事 凡察 등에게는 百戶 棗火 등 50가구가 현재 李滿住에게 가서 같이 거주하기를 요청해 왔다는 것이었다.⁵²⁾ 당시 李滿住의 建州衛는 婆猪江에서 興京으로 이주한 상태였으므로 建州左衛의 婆猪江 이주는 결과적으로 興京에서 婆猪江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건주세력이 차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⁵³⁾

이 시기 명 조정은 童倉 등의 건의에⁵⁴⁾ 의해 會寧의 建州左衛를 婆猪江 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일을 추진하기위해 朝鮮과 이미 婆猪江에 거주하던 毛憐衛에 칙서를 보냈다. 그러나 朝鮮은 이러한 명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建州左衛가 婆猪江 유역으로 함부로 이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會寧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는 우선 韓朶里가 이미 명으로부터 안심하며 그 업에 편히 종사하라는 칙서를 받았으며, 더구나 朝鮮 4鎮의 군사력이 그들에게 미치고 있어서 朝鮮의 허락없이 함부로 옮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더구나 옮겨가더라도 婆猪江 유역에서는 세력을 키운 毛憐衛 등의 세력에 흡수될 수 있기때문에 함부로 이동하기 힘들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경작하던 땅을 버리고 멀리 옮겨 가서 새로운 땅을 개간하며 산다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⁵⁵⁾

그러나 이들은 朝鮮의 예측과는 달리 1449년(正統 5) 6월 30여 호를 거느리고 渾河 상류의 蘇子河 유역으로 이동하여 建州衛의 李滿住와 회합하였다. 明朝는 이 소식을 듣고 遼東 總兵官 曹義를 통해 그들을 三土河 및 婆猪江 이서의 冬古河 사이에 거주하면서 李滿住와 회합하도록 하였다. 물론 당시 이 지역으로 옮겨간 建州左衛는 會寧의 전 인구가 옮겨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423년(永樂 21) 建州左衛의 童猛哥帖木兒 당시 會寧으로 이주할 때 전체 戶數가 523戶로 대략 인구를 추정하면 7,450 여명 정도 되기 때문이다. 523호를 7450명으로 계산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함길도 병마도절제사가 치보(馳報)하기를,

“이달 4월 14일에 童猛哥帖木兒의 管下에 있는 童家吾下 등 27명이 慶源府에 와서 고하기를, ‘우리 지휘관이 명나라 임금의 지령을 받아 다시 阿木河 지방에 돌아가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지휘관이 먼저 우리들에게 남녀 2백여 명과 소 1백여 마리를 거느리고 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밭을 갈며 농사를 짓게

으로 사료에 나타나기도 한다.

52) 『朝鮮王朝實錄』 世宗 17年 2月 丙寅. “咸吉道 兵馬都節制使, 抄寫 李滿住 凡察 處皇帝勅書二道以送. 其辭曰勅諭 建州衛都指揮 李滿住 等. 今 建州左衛都督 凡察等, 欲率領部下大小官民人等及百戶 棗火 等五十家, 俱來爾處居住. 已勅其同 毛憐衛 都指揮 郎不兒罕 等, 一同前來居住, 特諭爾等知之. 故諭. 又勅諭 建州左衛都督僉事 凡察等. 爾差指揮 李張家 等, 來奏 楊木答兀 引領野人來, 斃殺情由, 朕已具悉. 先因指揮 塔察兒 來奏報前事, 已勅內官 阮堯民 亦失哈 張童兒等, 前去整理, 尙未回報. 且待其日, 具奏何如. 或此賊順服, 遵朕號令, 將去人口頭畜等物, 還爾收領, 朕則有其前過不問, 如執迷不悛, 仍復爲惡, 必發大軍勦捕, 不饒爾等. 又奏 大小官民人等及百戶 棗火 等五十家, 見要往建州衛 都指揮 李滿住 那裏一處住坐. 從爾等所便, 茲因指揮 李張家 等回, 特諭爾等知之. 故諭.”

53) 『朝鮮王朝實錄』 17年 4月 辛亥.

54) 『明英宗實錄』 正統 2年 2月 辛酉, 11月 戊戌.

55) 『朝鮮王朝實錄』 世宗 20年 7月 己丑.

하고, 이내 서울에 가서 곡식 종자와 식량까지도 청하게 하였습니다. 또 鏡城·慶源에 보내는 官文도 우리들이 가지고 왔으며, 猛哥帖木兒는 뒤를 따라 正軍 1천 명과 婦人과 小兒를 합하여 6천 2백 56명을 거느리고 이달 4월 그믐께 나오게 될 것이고, 또 開陽에서 늘 살고 있던 女眞의 楊木塔兀은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安住할 곳이 없어서 부인과 어린이들을 합하여 3백여 명을 거느리고 옛 慶源에서 거주하려고 뒤이어 나올 것이다.’⁵⁶⁾

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建州左衛 指揮 童猛哥帖木兒가 慶源府에 이첩한 關文에 말하기를, “지난해 10월에 明을 위하여 助戰하다가 돌아올 때에, 황제의 聖旨에, ‘猛哥帖木兒의 거주하는 곳이 達達의 軍馬路 가에 있으니 가히 朝鮮 땅에 옮겨 살 수 있다.’ 하였고, 또 내가 직업이 없어서 굶었을 때에 太祖의 부르심을 받아 農牛·農器·糧料·衣服을 주며 ‘阿木河에서 거주하라.’ 하였으므로 이제 6월 초2일 管下 백성 5백 23호를 거느리고 阿木河로 돌아왔으니, 식량을 주어 살도록 하게 하여주십시오.’⁵⁷⁾

라는 기록에 기인한 것이다. 즉 523호의 인구가 약 7,25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이다. 즉 1戶의 인구가 최대 14명으로 계산되는 대가족의 가족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婆猪江유역으로 이동한 戶를 300戶(57%) 정도로 계산하고 이를 인수로 환산하면 대략 4,246명 정도가 蘇子河 유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머지 3,000여명의 인구는 會寧 지역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1440년(正統 5) 明朝가 朝鮮에게 建州左衛의 170여 호를 朝鮮의 경내에서 遼東으로 보내라는 내용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會寧에서의 建州左衛의 인구성장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⁵⁸⁾

그리고 다시 天順년간(1457~1464) 建州左衛가 婆猪江 유역의 建州部로 떠나기 시작하였으며 1460년(天順 4) 斡朶里部 역시 建州部로 이동하는 것이 朝鮮정부에 보고되었다.⁵⁹⁾

당시 毛憐衛는 이미 이전에 이전하여 李滿住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족이 會寧에서도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會寧 유역의 毛憐衛 세력에게 있었다. 여전히 다수가 會寧 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明朝는 1458년(天順 2) 會寧에 거주하던 毛憐衛의 都指揮使인 郎卜兒罕을 都督僉事로 임명하였으며⁶⁰⁾ 당시 朝鮮 역시 浪卜兒罕을 朝鮮의 울타리로 삼고자 하였다.⁶¹⁾

그러나 1460년(天順 4) 郎卜兒罕은 朝鮮에 의해 ‘通謀煽亂’의 죄명으로 살해되었는데, 이일로 명은 朝鮮이 명의 허락없이 변경의 일을 함부로 처리한 것을 문책하며⁶²⁾ 朝鮮은 명에게 해명을 해야하는 곤란한

56) 『朝鮮王朝實錄』 世宗 5年 4月 乙亥.

57) 『朝鮮王朝實錄』 世宗 5年 6月 癸酉.

58) 『明英宗實錄』 正統 5年 11月 己丑. “內一百七十餘家 爲朝鮮所留 土人百戶高早化等四十一家, 被毛憐衛都指揮 郎卜兒罕所留.” 이러한 사실은 建州左衛가 蘇子河 유역으로 옮겨갔지만 朝鮮 阿木河(會寧)에 남아있던 建州左衛는 이후 朝鮮과의 교섭을 연구하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

59) 『朝鮮王朝實錄』 世祖 6年 8月 丙辰. “楊汀 馳啓 …… 臣觀其情勢, 非特 斡朶里也 兀良哈 等亦懼罪, 續續逃移 建州者, 前後二十餘人, 其餘部落亦將俟秋, 盡移建州”.

60) 『明英宗實錄』 天順 2年 2月 壬辰.

61) 『朝鮮王朝實錄』 世宗 31年 5月 甲辰.

62) 『明英宗實錄』 天順 4年 4月 甲戌.

처지에 처하기도 하였다.⁶³⁾ 동년 明朝는 朝鮮의 위협을 겨우 피해 살아 남은 郎卜兒罕의 손자 木哈相을 指揮僉使로, 증손 塔納을 正千戶로 삼아 회유하고자 하였다.⁶⁴⁾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당시 毛憐衛는 建州左衛가 서천할 때 서천하지 않고 있었으며, 會寧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대다수 서천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건이나 朝鮮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阿木河 곧 會寧 지역에는 45개의 크고 작은 女眞 부락이 있었는데 매 부락은 작게는 2호, 크게는 40여 호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부락이 가지고 있는 장정의 수도 많은 차이가 났다. 그 관련 기사⁶⁵⁾를 정리해보면 <표 1>와 같다.

45개의 부락 중 兀良哈과 관계된 것이 28개 부락, 斡朵里와 관계된 것이 7개 부락인데, 모두 798호로 추산된다. 만약 이전 建州衛의 매호가 평균 14인 이었던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798호 x 14인=11,172명이며, 장정은 1,992명에 해당한다.

<표 1> 豆滿江 會寧지역의 女眞族 所屬과 人口數

방향	소속부락	소속인구수	기타	방향	소속부락	소속인구수	기타
會寧北 20리	斡朵里	40余家, 內壯丁 80명		鍾城西20리	兀良哈	47家, 內壯丁 93	
會寧北 10리	兀良哈	7家, 內壯丁 10명		鍾城北15리	兀良哈	10家, 內壯丁 20명	
吾音會	斡朵里	9家, 內壯丁 20명		鍾城北32리	兀良哈	12家, 內壯丁 41명	
會寧北 13리	斡朵里	15家, 內壯丁 30명		鍾城西190리	兀良哈	총 300명,	
會寧西 20리	斡朵里	7家, 內壯丁 15명		鍾城鎮東30리	不明	7家, 內壯丁 13명	
會寧西 35리	斡朵里	2家, 內壯丁 9명		穩城西15	兀良哈	6家, 內壯丁 13명	
會寧西 55리	兀良哈	7家, 內壯丁 15명		穩城西25	兀良哈	10家, 內壯丁 22명	
會寧西 90리	兀良哈	15家, 內壯丁 30명		穩城西35	兀良哈	19家, 內壯丁 30명	
會寧西 135리	兀良哈	20家, 內壯丁 40명		慶源鎮東39	兀良哈	9家, 內壯丁 30명	
會寧西 180리	兀良哈	20家, 內壯丁 40명		慶源南90	不明	3家, 內壯丁 10명	
會寧西 180리	兀良哈	20家, 內壯丁 30명		慶源南50	不明	6家, 內壯丁 20명	
會寧西 180리	兀良哈	9家, 內壯丁 20명		慶源東28	不明	25家, 內壯丁 40명	
會寧西 210리	兀良哈	50家, 內壯丁 110명		慶源東40	訓春	37家, 內壯丁 75명	
會寧西 210리	兀良哈	14家, 內壯丁 20명		慶源東40	兀良哈	43家, 內壯丁 80명	
會寧西 207리	兀良哈	45家, 內壯丁 100명		慶源東17	兀良哈	24家, 內壯丁 50명	
會寧西 270리	兀良哈	30家, 內壯丁 60명		慶源東60	兀良哈	61家, 內壯丁 120명	
會寧西120리	兀良哈	20家, 內壯丁 70여 명		慶興鎮東	骨看	17家, 內壯丁 36명	
會寧西280리	斡朵里	40家, 內壯丁 80명		慶興東1日程	骨看	20家, 內壯丁 42명	
會寧西南 210리	兀良哈	內壯丁 10여 명		慶興東2日程	骨看	3家, 內壯丁 8명	
會寧西南 210리	斡朵里	10余家, 內壯丁 20		慶興東4日程	骨看	2家, 內壯丁 6명	
會寧西南 240리	兀良哈	8~9家內壯丁 20		慶興北 30리	伊春	6家, 內壯丁 21명	
鍾城鎮城下	兀良哈	5家, 內壯丁 9		慶興北 30리	不明	22家, 內壯丁 28명	
鍾城西20리	兀良哈	15家, 內壯丁 29					

63) 『明英宗實錄』 天順 4年 10月 壬子: “本國斡朵里 童弓沙哈 無應歌等世居會令鎮北 與阿比車 通謀犯邊 挈其黨徃建州衛, 依都督李滿住, 且恐與之締謀構畔, 兵禍不息”.

64) 『明英宗實錄』 天順 4年 閏11月 庚申.

65) 『朝鮮王朝實錄』 端宗 3년 3월 己巳.

이는 곧 장정을 기준으로 하면 유사시 2천 여명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朝鮮은 이들을 늘 감시하기 위해서 변방의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안정을 도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했음을 알 수 있다.

2. 建州左衛의 衛印爭奪

童猛哥帖木兒가 會寧에서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어 누가 建州左衛를 통솔할 것인지는 여진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明과 朝鮮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朝鮮은 내심 童猛哥帖木兒의 아들 權頭의 양자 老胡赤이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였는데 그는 朝鮮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童猛哥帖木兒의 동생 凡察은 建州左衛의 都指揮僉事로써 朝鮮과의 관계가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하여 朝鮮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朝鮮이 생각하기에 그가 만약 建州左衛를 이끈다면 朝鮮의 여진정책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많았다.⁶⁶⁾ 童猛哥帖木兒의 아들 董山(곧 童倉)은 당시 나이가 겨우 16세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明朝는 凡察이 이미 명의 통제권 안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고, 明의 사신을 호위하다가 부상을 입는 등 明의 신임을 어느 정도 얻고 있었으므로 그가 후계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결국 예상대로 明朝는 1434년(宣德 9) 2월 凡察을 都指揮僉事에서 都督僉事로 승직시키고 童猛哥帖木兒의 뒤를 계승하도록 하였다.⁶⁷⁾

童猛哥帖木兒는 凡察과는 同母異父의 형제간이었는데,⁶⁸⁾ 그의 생존시 凡察이 좌군을, 그리고 아들인 權頭가 우군을 지휘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은 중군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후 童倉과 權頭의 처가 모두 잡혀가 돌아오지 않자 凡察은 이 기회를 틈타 明의 수도로 입경하여 都督僉事의 직과 印信을 받아 돌아와 일부의 斡朵里 부족을 지휘했다. 그러나 童倉과 權頭의 처가 살아돌아오자 다시 많은 세력들이 童倉과 權頭의 아들에게로 모여들었으며 세력은 凡察, 權頭, 童倉 등의 사이에서 크고 작은 집단으로 나누어 지게 되었다.⁶⁹⁾

이처럼 建州左衛가 3개의 세력으로 분리된 것은 建州左衛 자체에도 이로운 것이 없었으며, 누가 衛印과 권력을 장악할 것인지의 여부가 주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1437年(正統 2) 11月 明朝는 猛哥帖木兒의 아들 董山을 지휘사로 임명하자, 1438年(正統 3) 정월 建州左衛 도독 凡察이 조공을 핑계삼아 京師로 왔는데, 그가 조공을 온 목적은 明朝와 衛印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예전 童猛哥帖木兒가 七星野人의 공격을 받아 인신을 잃어버리자, 凡察은 명으로부터 새로운 인신을 다시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董山이 잃어버렸던 舊印을 새로 찾아 지금 1衛에 2印이 있게 되었던

66) 『朝鮮王朝實錄』 世宗 16年 3月 己亥. “金宗瑞啓答曰 …… 權豆養子 老胡赤, 可以爲首統衆. 觀其形勢, 皆付胡赤, 凡察則人皆厭之. 且於本國, 素有讎嫌, 若統其衆, 則後害可慮. 胡赤 今未受職於中朝, 且依本國求領其衆, 若遂其志, 將德我國, 盡心効力矣.”

67) 『明宣宗實錄』 宣德 9年 2月 癸卯. “升建州左衛都指揮僉事凡察爲 都督僉事 …… 仍當衛事…殺賊有功 故超升之”.

68) 『朝鮮王朝實錄』 世宗 20年 7月 辛亥. “宗瑞回啓, 凡察之母, 僉伊 甫哥之女 也吾巨. 先嫁豆萬 揮厚 生猛哥帖木兒. 揮厚死後, 嫁揮厚 異母弟容紹 包奇, 生於虛里 於沙哥 凡察 包哥. 本妻之子, 吾沙哥、加時波、要知 則凡察與猛哥帖木兒 非同父弟明矣. 然猛哥帖木兒 生時, 如有興兵之事, 則必使 凡察領左軍, 權豆領右軍, 自將中軍, 或分兵與凡察, 故一部之人, 素不賤惡.”

69) 『朝鮮王朝實錄』 世宗 20年 7月 辛亥. “傳旨 咸吉道 都節制使 金宗瑞今聞 凡察, 非猛哥帖木兒 同父弟, 而 童倉幼弱之時, 猶領管下, 以爲一部酋長. 今童倉 年滿二十, 體貌壯大, 一部人心咸歸 童倉, 而輕凡察. 卿久在邊境, 必熟知形勢, 斡朵里 一部之心, 果如予所聞歟 備細啓達. …… 猛哥帖木兒 死後, 童倉與權豆 妻, 皆被擄未還, 凡察 乘其隙極歸京師, 受都督僉事之職, 又受印信而還, 斡朵里 一部人心, 稍附之. 及權豆妻與童倉生還, 且得遺腹之子, 一部人心, 皆歸於權豆之子與童倉. 其後 權豆之妻輕薄善罵, 童倉愚弱, 一部稍稍失望. 其赴京也, 朝廷薄童倉, 而厚凡察, 賜凡察以玉帶, 且命凡察曰汝生時管一部, 死後并印信與 童倉. 以此一部之人不得已附於凡察, 然其心則或附童倉, 或附權豆之子, 時未有定.”

것이다. 곧 舊印은 童猛哥帖木兒의 아들인 董山의 수중에, 그리고 새로 받은 신인은 童猛哥帖木兒의 동생 凡察의 수중에 있게 되었다. 凡察은 新·舊 2개의 衛印을 모두 본인이 갖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明朝는 결국 凡察이 舊印을 갖고 新印은 반납하며 董山이 예전 같이 凡察을 도와 일을 처리하도록 결정하였다.⁷⁰⁾

그러나 1441년(正統 6) 정월 明朝는 董山을 승직시켜 都督僉事로 삼고, 1443년(正統 6) 凡察에게 명하여 구인을 반납하도록 명하였다. 동시에 遼東總兵官 曹義에게 명하여 두사람 사이에 갈등이 되고 있는 衛印의 문제를 部衆의 의견을 통해 해결하도록 전하였다. 그러나 부중의 의견 역시 통일되자 않고 있었다. 曹義는 建州左衛가 비교적 董山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凡察을 무시하면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衛의 分設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建州右衛를 신설해 凡察이 新印을 갖고 建州右衛를 다스리도록 결정하였다. 곧 明朝는 曹義의 건의를 받아들여 建州左衛를 분할하여 建州右衛를 신설하고 都督僉事 董山을 建州左衛의 都督同知로, 都督僉事 凡察 역시 都督同知로 승직시키고 각각 左右衛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董山은 舊印을 凡察은 新印을 관리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1445년(正統 10) 12월 建州左衛와 右衛가 같이 명에 來朝하였다. 이로써 10여 년 동안 지속된 建州左衛와 右衛의 衛印을 둘러싼 분쟁은 막을 내렸다. 이러한 衛印의 문제는 비단 建州左衛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勅書와 衛印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그의 무리를 손쉽게 통치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勅書와 印信은 각각 女眞 지배층 사이에서 쟁탈의 목표가 되었다.

Ⅲ. 遼東都司와 建州女眞의 衝突

1. 建州衛의 成長

建州部가 차례로 渾河 유역으로 옮겨 온 이후 지정학적으로 明의 遼東都司와 자주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초기에 女眞은 明의 屬衛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女眞衛들이 反明의 모습을 보일 경우 明 역시 이들에 대해 토벌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朝鮮이 이들을 私의으로 토벌하는 것 역시 고의로 묵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토벌전은 여진이 성장함에 따라 서로간의 충돌과 갈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

明과 朝鮮은 여진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官職과 賞賜 등을 이용해 회유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1436년(正統 元年)~1449년(正統 14)의 시기 동안 建州部의 각 衛는 지속적으로 明에 조공하였는데 明朝는 建州部에 내조에 대하여 많은 관직을 내려주었다. 1442년(正統 7) 建州衛 都指揮僉事 李滿住를 都督僉事로, 1447년(正統 12)에는 다시 都督同知로 승직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明의 초무와 회유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正統 후기 북변의 정세가 심각해지면서 몽골세력이 여진지역으로 대거 침입하여 여진과 연합을 도모하거나 통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진의 遼東 공격 역시 그 강도를 더해갔다. 특히 서몽골의 공격을 막기위해 직접 장성으로 갔던 英宗이 포로로 잡히고 명군이 土木堡에서 북벌하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 시기를 전후하여 女眞은 생활필수품 등이 부족하여 변방의 가옥과 가축을 약탈하는 등 遼東을 위협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70) 『明英宗實錄』 正統 5年 11月 乙丑.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었다.

1450년(景泰 元年) 5월 建州와 海西女眞의 각부 1만 5천여명이 遼東을 침입하였다가 패하여 도망하였으며,⁷¹⁾ 이후에도 크고 작은 女眞의 약탈과 침입이 더욱 증가하였다.⁷²⁾

明朝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女眞을 토벌할 계획을 세웠으며, 女眞은 이러한 明의 움직임을 보고 渾河 유역과 婆猪江 유역을 자주 옮겨다니며 생존을 모색하였다.⁷³⁾ 女眞이 婆猪江으로 이동한 상황은 당시 그들에게 잡혔다가 朝鮮으로 탈출한 遼東인 唐桂를 통해 상세한 정보가 전해졌다. 의정부의 상주를 보면

“이제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온 중국 사람 唐貴 張順 등이 그 供辭에서 일컫기를, ‘우리들이 지난해 8, 9월 사이에 李滿住·凡察 등의 관하 사람들에게 사로잡혔다가, 금년 6월에 야밤을 이용해 도망해 낮에는 다니고 밤에는 쉬면서 5일 만에 理山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만주가 일찍이 渾河에서 거주하다가 금년 3월에 達達과 遼東의 軍馬를 두려워하여, 부하를 거느리고 渾河 남방 10일 程度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枉天 땅으로 주거를 옮겼습니다. 枉天 으로부터 남쪽으로 2일 정도 거리의 지명은 五味何이며,, 五味何로부터 남쪽으로 반종일 정도 거리의 지명은 婆猪江인데, 婆猪江 으로부터 枉天까지는 도로가 험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비록 크고 작은 강이 있지만 人馬가 모두 통행할 수 있습니다. 五味何 서쪽에 兀刺山城이 있는데, 李滿住의 관하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산성이 험준하여 서쪽의 遼東도 두렵지 않고 북쪽의 達達도 두렵지 않으나, 다만 남쪽의 朝鮮의 軍마가 매우 두렵다. 그러나, 피난할 만한 땅이 이곳만한 데가 없어 금년 추수 후에는 꼭 이곳에 와서 살아야겠다.’ 하였습니다.”⁷⁴⁾

라고 하였다. 朝鮮이 보기에 건주여진이 朝鮮邊境의 새로운 문제 거리를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朝鮮은 대비책을 준비하였다. 이전에도 咸吉道都節制使 李澄玉이 李滿住가 白頭山 북방의 南羅耳夫尼나 혹은 慶源 땅인 訓春을 차지하여 살고자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였는데, 비록 실제 이루어 지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정보는 그들이 세력을 끊임없이 확장해가려는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⁷⁵⁾

우리는 다시 『朝鮮王朝實錄』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당시 建州 3衛의 인구를 대략 추산할 수 있다.

平安道右道都節制使에게 諭書를 내리니,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이번에 左道都節制使로부터 啓本이 왔는데 요약하면 李滿住 관하에 있는 金納魯 등 6명이 江界의 滿浦에 왔기에 그의 온 연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脫脫의 軍마가 海西衛를 공격하여 사람을 죽이고 물품을 노략해 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李滿住가 편히 살지 못하고 금년 3월에 兀刺山城으로 돌아와 살고 있으며, 瓮村의 凡察의 아들 甫下吐는 웅촌 북쪽 15리 터에 위치한 馮毛水 땅으로 이주하였고 充尙은 瓮村으로 이주하였는데, 李滿住 관하에는 1천 7백여 호가 되고, 充尙과 甫下吐의 관하에는 모두 합쳐서 6백여 호가 되며, 桑木·仇非로부터 沈者羅老·林加羅의 古家 기지에 이르기까지는 海西衛의 指揮 李滿이란 자가 그 관하의 1천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살고

71) 『明英宗實錄』 景泰 元年 五月 癸丑.

72) 『明英宗實錄』 景泰 元年 六月 癸未.

73) 『朝鮮王朝實錄』 文宗 元年 4月 壬申. 당시 遼東감찰어사가 朝鮮에 대해 “李滿住逃在婆猪江, 童倉 凡察逃在東分水嶺八道河極南 與汝國臨近” 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建州部가 동都司의 토벌을 피해 朝鮮변경으로 온 것으로 보인다.

74) 『朝鮮王朝實錄』 文宗 1年 8月 辛未.

75) 『朝鮮王朝實錄』 文宗 元年 6月 壬午.

있습니다 …… 76)

라고 하였다. 左道都節制使로부터 온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李滿住 관하에는 1천 7백여 호가 되고, 充尙과 甫下吐의 관하에는 모두 합쳐서 6백여 호가 되며, 桑木·仇非로부터 沈者羅老·林加羅의 古家 기지에 이르기까지는 海西衛의 指揮 李滿의 관하에 1천여 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모두 인구로 추산하여 합치면 2만~3만 여명 정도로, 이 정도의 규모는 衛所제도가 이미 붕괴되어 가고 있던 遼東都司와 변방이 비교적 허술한 朝鮮에 대해서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위협적인 세력이 되기에 충분했다.

1450年(景泰 元年) 4月 明朝는 建州右衛의 都督同知 凡察의 손자 納郎哈이 凡察의 직위를 승격하도록 하고 있는데, 1449年(正統 14)에 凡察이 이미 죽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1449년 정월에 凡察의 처 朵兒眞素이 명에 來朝한 기록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⁷⁷⁾ 일반적으로 부족장의 부인이 京師에 오는 경우는 주로 족장의 죽음과 함께 그를 계승할 사람을 상의하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建州右衛의 凡察이 죽은 후 그의 두 아들 중 계승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상의하기 위해서 경사에 온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그의 두 아들은 阿哈達와 不花禿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阿哈達이 일찍 죽음으로써 凡察의 손자이자 阿哈達의 아들인 納郎哈이 凡察을 승격하게 되었다.

1455年(景泰 6) 12월에는 明朝는 建州衛 도독 李滿住의 아들 古納哈를 대직시켰다. 이 시기 이미 李滿住는 나이가 연로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명과 계속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어 아들에게 代職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建州部 중에 그래도 지도력이 있는 인물은 建州左衛의 董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는 명과 朝鮮이 경계해야 하는 새로운 인물로 부상하고 있었다. 1453年(景泰 4) 建州右衛 都督 董山이 명에 내조하였으며, 1458年(天順 2)에는 다시 그를 右都督에 임명하였다. 明朝가 이처럼 董山을 우대한 이유는 그가 明의 입장에 서서 女眞세력을 통제해주기를 기대했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곧 그를 통해 遼東의 女眞세력을 안정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女眞은 늘 明朝의 눈을 피해 朝鮮과 수없이 접촉하고 있었다. 朝鮮 世祖시기에 해당하는 1458年(天順 2) 建州衛 도독 李滿住의 아들 古納哈와 建州左衛의 도독 董山이 朝鮮에 내조하여 正憲大夫中樞院使의 관직을 받았다. 建州部가 明의 눈을 피해 朝鮮과 접촉하여 관직을 받은 것은 明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당시 明은 屯田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衛所제도가 붕괴하는 등 遼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던 시기로, 朝鮮 世宗과 世祖의 과감한 女眞招撫政策은 다수의 女眞을 朝鮮으로 흡수할 수도 있었으므로 朝鮮과 女眞의 연합까지도 우려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그 일대의 女眞인들 중에는 朝鮮의 관직에 임명된 자가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朝鮮이 女眞에게 관직을 내리는 행위는 明의 입장에서 보면 명과 동등한 2중 관직을 내리는 것으로서 명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와 같았으며, 더구나 명 몰래 관직을 하사했기 때문에 明이 보기에 女眞과의 潛通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하였다.

朝鮮의 女眞에 대한 적극적인 초무와 회유는 明을 자극하였으며, 1459年(天順 3) 정월과 4월에 명은 朝鮮에 칙서를 보냈는데, 명의 허락없이 女眞과 私적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⁷⁸⁾ 그리고 明朝는 建州 3衛의 右都督 董山, 都督同知 古納哈, 納郎哈 등에게도 칙서를 보내 明朝 몰래 朝鮮과 접촉한 것을

76) 『朝鮮王朝實錄』 文宗 1年 8月 甲戌. “下諭書于 平安道 右道都節制使曰 今來左道都節制使啓本, 節該 李滿住 管下 金納魯 等六名, 到江界地面 滿浦, 問其來由則曰 脫脫 兵馬, 擊海西衛, 殺虜人物. 因此 滿住 不得寧居, 今年三月, 還居 兀刺山城, 益村 凡察子 甫下吐, 則移居 益村 以北十五里 吾毛水之地, 充尙 則移居 益村, 上項 滿住 管下一千七百餘戶, 充尙 甫下吐 管下, 共六百餘戶, 自桑木 仇非, 至于沈者羅老 林加羅 古家基址, 則海西衛指揮 李滿, 率管下一千餘人來止”.

77) 『明英宗實錄』 正統 14年 丁月 丁亥.

78) 『明英宗實錄』 天順 3年 丁月 乙亥, 4月 庚申. “勅諭朝鮮國王 彼即受朝廷官職 王又加之, 是朝廷抗衛矣”.

문책하였다.⁷⁹⁾

朝鮮의 官職을 하사받는 것 이외에도 女眞人들은 명의 눈을 피해 朝鮮으로 넘어오거나 접촉하는 경우는 많았다. 1458년(天順 2)년에는 童倉이 사신으로 보낸 多陽哈, 凡察의 아들 甫下土, 李滿住 관하의 毛里 등이 歸附하기도 하였다.⁸⁰⁾ 물론 朝鮮은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 명의 눈을 피해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회유하였다.⁸¹⁾ 이처럼 양면외교를 전개하던 女眞은 명과의 관계를 위해 1459년(天順 3) 5월 建州衛 都督同知 古納哈 등은 京師에 가서 朝鮮과의 접촉을 해명하는 등 상황설명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⁸²⁾

그러나 朝鮮과 접촉한 것에 대한 女眞의 해명은 明朝가 볼때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었으며, 遼東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明을 설득할 수 없었다. 女眞인들은 明으로부터 승직되기를 바랬지만, 明朝는 建州左衛 都督 董山, 建州衛 都督同知 古納哈, 建州右衛 都督同知 納郎哈 등 3인 중 朝鮮의 관직을 받지 않은 納郎哈 만을 右都督으로 승직시켰다. 당연히 董山과 古納哈를 승직시키지 않은 것은 朝鮮으로부터 관직 등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⁸³⁾

1465年(成化 元年) 建州部는 여전히 婆猪江 유역에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다. 중국인 稱波右가 전한 기록⁸⁴⁾과 申叔舟가 수집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李滿住 세력은 여전히 婆猪江 유역에 살고 있었으며, 그가 살고 있던 위치는 원래의 거주지 북쪽 150리 정도 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建州右衛都督 納郎哈의 거주지는 李滿住의 거주지 남쪽 1백여 리 정도되는 兀刺山城으로, 李滿住의 거주지와 兀刺山城 사이의 남북으로 50리 지점에 建州右衛의 甫下土(納郎哈의 숙부)의 거주지가 자리잡고 있었다.

建州左衛 도독 董山은 李滿住 거주지의 서북쪽 175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당시의 建州衛와 建州右衛는 婆猪江 유역에 있었으며 建州左衛는 渾河유역에 있었다. 建州 3위의 배열은 建州衛가 중간에, 建州右衛가 남쪽에, 建州左衛가 서북쪽에 위치하는 형세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稱波右의 서술을 중심으로 군인수와 호구수량을 계산해보면 婆猪江 유역을 중심으로한 전체 建州 3衛는 대략 2,300 여호에 군인은 13,800 여명으로 추산된다. 1戶를 최대 14명으로 추산하면 백호는 1,400여명이며 이중 군인이 600명으로 약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군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이 지역으로 옮겨온 최대 33,200의 인구 중 13,944명이 군역에 종사한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것은 朝鮮과 명에 대해 커다란 압력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통계는 成化년간은 建州部의 遼東침략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겠다.

2. 建州部の 遼東都司 공격

建州部는 婆猪江 지역으로 남천한 이후 요동을 빈번하게 약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은 칙유를 통해 적절히 처리하고자 하였다. 우선 도지휘 武忠 등을 毛憐衛 등에 보내 董山 등이 약탈행위를 중지하

79) 『明英宗實錄』 天順 3年 3月 甲申.

80) 『朝鮮王朝實錄』 世祖 4年 6月 丁巳.

81) 『朝鮮王朝實錄』 世祖 6年 9月 丁亥.

82) 『明英宗實錄』 天順 3年 5月 戊申.

83) 『明英宗實錄』 天順 3年 6月 辛亥. “尙書馬昂等言 董山 古納哈世授朝廷厚意, 不思圖報, 乘間潛授朝鮮國王官職賞賜, 今不加誅 幸矣, 乃又資無厭之求, 希意外之恩, 不宜允. 惟納郎哈 不受朝鮮賞資 忠誠可嘉 宜量加一職”.

84) 『朝鮮王朝實錄』 世祖 11年 5月 丁未.

도록 요청하였으며, 建州 3衛의 주위에 있는 크고 작은 女眞 부락에도 역시 칙서를 보내 建州衛에 협조하지 말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 遼東都司의 군대를 동원하여 건주를 토벌하고자 하였다. 撫順에서는 興京을, 鳳凰城에서는 婆猪江 유역의 방어를 각각 담당하여 建州 3衛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하였다. 명의 군사적 공격으로 女眞의 지도자 董山 등 56인이 참수되고 女眞人 200여명이 명의 군대에 의해 체포 구류되었다. 명의 협조 요청으로 朝鮮에서도 女眞에 대한 토벌전을 벌이고 있었다. 朝鮮은 李滿住의 본거지를 공략하여 李滿住 및 그 아들 古納哈 등 273 명을 죽이고 포로 24명을 생포하였으며 200 여 곳 이상을 불태우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朝鮮의 女眞정책은 朝鮮의 북방정책을 실현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명과 朝鮮의 공격으로 建州女眞이 받은 충격은 상당히 심각하였으며 수천명의 사상자와 재산의 손실, 그리고 1000 여명이 포로로 잡히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이끌던 李滿住, 董山, 古納哈의 죽음과 같은 지도자의 부재는 그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다. 마침내 1468년(成化 4) 建州三衛의 指揮 阿魯力哈 등은 내조하여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부족을 풀어주고 三衛를 다시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⁸⁵⁾ 2년 후 建州左衛 都指揮 修那和札이 와서 董山의 아들 脫羅는 都指揮同知로 李古納哈의 조카 完者禿은 指揮僉使로 추천하여 명은 다시 승인하였으며 女眞은 여전히 재기의 조짐을 보였다.⁸⁶⁾

1470년(成化 6) 8월에는 建州 都指揮 惱里呵吉里的 상주를 통해 建州右衛의 右都督 남량합이 자식이 없어 그 숙부인 卜哈禿이 습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卜哈禿은 이전 遼東都司 지역을 약탈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明朝의 병부는 그의 습격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遼東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마침내 습적이 허락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成化년간의 대대적인 토벌로 建州三衛의 세력은 일시적으로 약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遼東의 안정에 기여할만한 인물들을 다시 建州 3衛의 수령으로 임명하여 새로운 안정적인 女眞관계를 맺어나가고자 한 명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 女眞統制는 지속적이지도 신속하지도 않았다.

1477년(成化 13) 海西 各衛의 수령들은 建州 3衛를 규합해서 遼東都司에서 멀지않은 靉陽堡를 공격하였다. 당시 명은 변경 밖으로 나가서는 안될 품목을 정해 놓고 있었는데, 이러한 명의 제한 품목은 곧 女眞人의 경제교역 및 발전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女眞人은 종종 그들의 필요에 의해 교역금지 품목을 몰래 구입하여 변경 밖으로 나가곤 하였다. 명은 이러한 女眞에 대해 명에 의해 임명된 女眞인이 建州3衛가 조공에서 돌아갈 때 그들과 같이 가서 명에서 구입한 물건의 내용을 점검하겠다고 하였고 여진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靉陽堡를 공격한 것이었다.

당시 遼東巡撫 陳鉞은 이러한 女眞의 靉陽堡 침략에 대해 군사를 일으켜 완전히 토벌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조정에서는 반대의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그러나 1478년(成化 14) 2월 遼東總兵官 도독동지 歐信과 巡撫遼東좌부도어사 陳鉞은 이미 建州 3衛를 공격하여 적의 본거지 53寨와 가옥 200여채 그리고 2백여 명을 참수하는 등 강경한 군사적 방법으로 女眞을 습격하였다.⁸⁷⁾ 이러한 상황에서 황제는 馬文升과 陳鉞의 모순을 막기위하여 建州衛를 초무할 방법을 상의하여 수립하도록 하였다. 馬文升은 建州 3衛와 충돌 없이 초무하는데 힘을 썼으나 여전히 陳鉞 등은 이미 기후가 더운 6월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공격을 통해 女眞을 제어하려는 방법을 취하고자 하였다.⁸⁸⁾

85) 『明憲宗實錄』 成化 4年 3月 戊寅.

86) 『明憲宗實錄』 成化 4年 3月 戊寅.

87) 『明憲宗實錄』 成化 14年 2月 庚申.

이러한 두 사람의 입장에 대해 병부상서 余子俊은 馬文升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왜냐하면 당시의 조건으로 보면 馬文升의 입장이 훨씬 더 장기적이고 합리적이었다. 더운 시기에 대대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은兵法上 좋은 계책이 아니었으며 여진 역시 상당히 성장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년 6월 陳鉞과 馬文升의 女眞문제 처리방식의 차이를 줄이고 서로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太監 汪直을 遼東에 파견하였다. 당시 汪直은 조정에서 득세하던 환관으로, 陳鉞은 그와 모의하여 그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汪直이 돌아간 이후 陳鉞은 建州部가 계속 遼東都司를 약탈한다는 핑계를 들고 馬文升의 유화정책이 문제가 있음을 상주함으로써 마침내 馬文升은 1479년(成化 15) 5월 서남 지역의 重慶衛로 유방되었다.

1479년 9월 明朝는 太監 汪直을 都督軍務로 삼고 撫寧侯 朱永에게 征虜將軍의 印을 주어 總兵官에 임명하면서 建州를 토벌할 것을 계획하였다.⁸⁹⁾ 그리고 마침내 11월 대대적으로 建州를 공격하여 659명을 참수하고 486인을 포로로 잡아 보고하였다.⁹⁰⁾

당시 朝鮮에서도 女眞의 위협이 심각하여 鴨綠江을 건너 女眞지역을 토벌하였으며 1480년(成化 16) 2월에 女眞인 16명을 참수하는 등 女眞지역을 공략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⁹¹⁾ 그러나 이러한 몇 차례의 建州토벌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지속적인 약탈을 저지할 수는 없었으며 이후에도 建州部の 遼東약탈은 지속되었다.

建州部の 성장과 공격은 遼東都司에 새로운 압력이 되었다. 특히 遼東 방어에 필요한 각종의 물자 및 식량공급은 遼東都司에서 자체수급해야 했으므로 屯田이 황폐화되고 있던 遼東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압력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었다.

女眞 역시 明朝와 朝鮮으로부터 수차례의 타격을 받고 일시적으로 생산과 생활에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1481년(成化 17) 8월 建州衛 도독 完者忒은 甫忽答 등 18인을 보내 明朝에 조공하며 建州部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1483년(成化 19) 汪直이 流放되고 馬文升이 다시 遼東都司 지역을 관리하면서 女眞과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結 論

明朝는 초기부터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요동정책을 전개하였지만 占據했던 지역은 遼東의 일부에 국한되었다. 遼東都司가 시행했던 정책들은 초기에 성공을 거두는 듯 하였으나 永樂帝 사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다. 遼東都司 관할지역의 인구는 도망하고 屯田제도 역시 생산량이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屯田의 상당부분이 遼東에 파견된 관리 등에게 獨占되어 이미 군사력의 중추인 衛所마저도 붕괴되어가고 있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遼東정책은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몽골의 兀良哈 3衛와 建州 3衛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가 그 일례라고 할 수 있다. 明代 兀良哈 3衛는 몽골족의 일부로 동·서몽골과 明朝사이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明朝는 초기 이들 몽골지역에 兀良哈 3衛를 설치하여 大寧都司의 관할로 삼

88) 『明憲宗實錄』 成化 14年 6月 戊戌.

89) 『明憲宗實錄』 成化 15年 9月 丁亥.

90) 『明憲宗實錄』 成化 15年 11月 丁未. “謂建州賊在萬山中, 山林高峻, 道路險狹, 臣等分爲五路, 出撫順關, 半月抵其境, 賊據險迎敵, 官軍四面挾攻, 且發輕騎, 焚其巢穴, 賊大敗, 擒斬六百五十九級, 俘獲四百八十六人, 破四百五十寨, 獲牛馬千余”.

91) 『明憲宗實錄』 成化 16年 2月 壬申. “引兵渡江, 進搗巢穴, 斬首十六級, 生擒南婦十五人, 并獲遼東被掠婦女七人, 及驅其牛馬, 毀其廬舍”.

았다. 兀良哈 3衛는 그 세력이 강하지 못하여 명과 동·서몽골을 상대로 수시로 태도를 변화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다. 동·서몽골과 혼인정책을 통해 연합하기도 하고, 동쪽의 海西女眞과 연합하여 遼東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또한 명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명에게 戰馬를 제공하는 등의 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권을 획득하는 등 多元的 外交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였다.

兀良哈의 多元的인 外交는 동·서몽골의 동향과 관련이 있다. 동·서몽골의 成長과 角逐은 遼東都司의 군사적 역량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兀良哈에게도 그 영향을 미쳤다. 兀良哈는 동서몽골에 쫓겨 남하할 수밖에 없었으며 遼東의 遼河유역을 자주 약탈하였다. 곧 동·서몽골의 遼東진출로 兀良哈는 명의 遼東을 불안정하게하고 遼東都司지역을 위협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兀良哈의 성장은 동·서몽골의 정세, 明代 遼東都司의 戰略變化와 대외적인 支配力 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명조는 初期부터 兀良哈이 遼東의 위협이 되었음에도 그들과 政治·經濟的 關係를 맺고자 하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兀良哈 3衛를 통해 몽골지역의 정보를 쉽게 전해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明朝는 兀良哈 3衛가 몽골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규정된 關口이외에도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히 만들어주고 賞賜도 준비하였다. 兀良哈는 이러한 명의 要求에 대해 몽골지역의 군사동향이나 긴급한 상황을 명조에 전달하면서 그들의 실익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울랑함을 이용해 遼東都司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兀良哈 3衛는 지리적인 위치상 동몽골과 서몽골의 침입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유사시 南遷하여 명의 변경을 소란스럽게 할 소지가 있었으므로 명은 初期부터 그들과 연계하여 遼東방어의 울타리로 삼고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하였다.

女眞 역시 吉林과 豆滿江 유역에서 遼東都司에서 가까운 婆猪江과 渾河유역으로 옮겨와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옮겨온 후 女眞은 建州 3衛를 형성하면서 遼東都司와 朝鮮의 변경을 약탈하였다. 이들의 군사력은 점점 성장하여 正統시기에는 遼東으로 통하는 朝鮮과 명의 사행로 마저 위협하였으며, 朝鮮은 명에게 기존의 使行路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명은 朝鮮의 使行路 變更要求를 무시한채 女眞의 위협을 방지하고 사행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連山關에서 鳳凰城에 이르는 遼東八站지역에 驛站과 城堡를 增築하면서 여진방어를 강화하였다.

명은 여진방어를 위해서 동부지역에 遼東邊牆을 수축하였다. 그러나 遼東邊牆을 통하여 遼東都司의 방어선이 견고해졌지만 몽골과 女眞의 침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遼河套 邊牆은 영락 이후 邊外로 방치되었는데, 이는 명 初期에 형성된 遼河유역의 넓은 경지면적을 포기하고 遼河套의 防禦線이 길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로써 兀良哈 3衛 등의 몽골족은 자연스럽게 遼河套 지역으로 밀려들어와 살면서 遼東北邊의 방어체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변해갔다. 계속되는 兀良哈의 위협으로 명의 내부에서는 遼河套 지역의 800리 凹字型의 방어선을 일자형의 400리 방어선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되었다. 그러나 결국 재정의 부족과 몽골족의 침입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방어선의 변경은 실현시키지 못하였으며 遼河套 지역은 한층 더 강한 兀良哈 3衛의 침입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邊牆은 防禦機能 이외에도 衛所制度의 崩壞 등 遼東방어체제가 弱화되는 과정속에서 遼東의 屯軍과 屯民들이 邊牆 밖의 몽골 女眞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동·서몽골은 점차 그 세력을 遼東으로 확대시키고 있었다. 명 正統년간 이후 몽골은 이미 海西女眞 지역에 들어왔으며 海西女眞은 몽골에 밀려 兀良哈 3衛와 함께 명의 遼東邊牆을 침입하였다. 특히 서몽골 에센(也先)의 兀良哈 3衛에 대한 공격은 兀良哈와 女眞을 명의 판도 속에 끌어들이려던 遼東都司의 戰略

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당시 북경에서 가까운 大同지역 역시 몽골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었는데, 에센은 명 英宗을 포로로 잡고, 明朝가 兀良哈와 女眞에게 준 勅書와 印信을 탈취하여 명과의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즉 에센이 女眞을 攻擊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익을 선점하는 것도 주된 목적 중의 하나였다. 이것은 동몽골이 兀良哈 3衛를 공격하고 명이 兀良哈 3衛에게 부여한 印信과 勅書 등을 약탈한 것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곧 에센汗은 명을 상대로 하는 조공무역의 확대를 통해 몽골의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명의 몽골과 女眞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는 틈을 타 女眞에게 제공한 印信과 衛印 등을 탈취하려는 것이었다. 也先(에센)의 세력이 開原·瀋陽·撫順城 등을 대대적으로 침략하자, 근처의 建州衛 등의 李滿住·凡察·董山·刺答 등은 몽골의 위협으로 일부의 몽골세력과 연합하여 명의 군대와 충돌하였다. 몽골세력의 이러한 움직임은 당연히 근처의 女眞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兀良哈 동부에 위치하던 海西女眞이 가장 먼저 그들의 공격을 받았으며, 建州女眞 역시 몽골세력의 공격을 피하여 남하하면서 遼東都司를 위협하였다. 곧 몽골의 위협은 女眞이 婆猪江 유역 등으로 남친 하도록 하여 遼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女眞과 遼東都司의 충돌은 명과 女眞關係를 악화시켰으며 衛所體制를 약화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遼東都司의 영향력은 永樂시기 이후 遼東邊牆을 축조하는 등 방어체제의 정비를 시도했지만 邊牆 밖으로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즉 명 初期부터 시행한 衛所制度가 永樂년간 이후 인구의 이탈과 변경의 불안정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屯田 역시 생산량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등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遼東都司의 대외적인 기능마저 더욱 약화되었다. 전쟁에 필요한 戰馬, 경계의 회생에 필요한 인구 확보 등에서도 정책적인 한계를 보이면서 遼東都司는 영향력 있는 遼東의 중심기구가 아니라 이미 그 힘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었다.

반면 몽골과 女眞은 점차 세력을 키워 北邊과 遼東을 위협하고 있었다. 女眞은 遼東都司를 대신하여 遼東의 주인으로 성장하였다. 이미 遼東의 동부 女眞지역은 명의 변방이 아니라 遼東變化의 중심지였으며 반면 遼東都司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遼東都司는 明代 後期로 갈수록 支配力의 限界를 보여 줄 뿐이었다. 이러한 遼東都司의 한계는 兀良哈와 女眞이 요동도사와 충돌하는 과정속에서 확인되었다.

遼東都司 遼東支配權의 한계는 훗날 後金이 몽골과 연합하여 遼東을 신속하게 장악하는 원인이 되었다. 朝鮮 역시 요동도사를 대신하여 女眞을 遼東의 새로운 세력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後金の 入關 후 朝鮮은 다시 그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동아시아의 역사는 명·淸交替期를 맞이하였다.

提 要

明前期 兀良哈·女眞의 興起與 遼東의 危機

南 義 鉉 (江原大學校 歷史系 博士研究生)

明朝從初期開始雖然以遼東都司爲中心展開了多樣的政策, 但占据的地域只局限于遼東一帶。遼東都司實行的政策引起很多事端。如, 遼東都司管轄地區的人口減少, 屯田制度也減少了生產量, 還有屯田的相當一

部分被派到遼東的官吏所獨占。因此連軍事力的中樞衛所也在崩潰着。

在對外方面遼東政策也表現出它的局限性。可以說蒙古的兀良哈3衛和建州3衛統治區的弱化就是一個例子。明朝兀良哈3衛是作為蒙古族的一部分，在東·西蒙古和明朝之間形成一個很大的勢力。明朝初期，在蒙古地區設立了兀良哈3衛，管轄大寧都司。兀良哈3衛被明收復後因它的勢力不強，因此東·西蒙古為對象，以隨時轉換態度的方式想謀取自己的利益。如與東·西蒙古通過婚姻政策聯盟，或者與東邊的海西女真聯盟攻打遼東。還有通過與明改善關係，以提供戰馬為條件進行交流獲取經濟利益等外交手段謀取生存。

兀良哈多元的外交與東·西蒙古動向有關連。東·西蒙古的成長和角逐不僅影響着遼東軍事力量的弱化，同時也影響到兀良哈。兀良哈被東·西蒙古打敗而不得不南下，因此經常掠奪遼東的遼河流域。即東·西蒙古攻打兀良哈，明朝的遼東因兀良哈的掠奪而不穩定。因此兀良哈成為威脅遼東都司的新力量。從這種角度來看，只有兀良哈的成長，才能成為了解東·西蒙古、女真和明代遼東的重要因素。

明朝的遼東政策也影響到兀良哈的多元外交。明朝對兀良哈實行怀柔政策。明朝的怀柔政策使兀良哈把明朝當作背後勢力，為了追求實際利益時而對明朝表現得很友好。

明朝從開始就知道兀良哈對遼東構成威脅，却在政治經濟上有往來是因為通過兀良哈三衛可以獲得蒙古地區的情報。當兀良哈上報給明朝關於蒙古的緊急情報時，明朝不僅給賞賜，而且還可以進出指定管區以外的地區。兀良哈根據明朝的要求，時常上報給明朝關於蒙古地區的軍事活動或者是緊急情況來謀求自己的實際利益。再一個原因是利用兀良哈來維持邊疆的安定。從兀良哈三衛的地理位置來說易受到東西蒙古的侵入，而且有時擾亂明朝邊境，因此為了把兀良哈作為遼東防禦的籬笆，明朝從初期開始就積極地與兀良哈維持適當的關係。

女真也開始從吉林和豆滿江流域遷移到離遼東都司比較近的婆豬江和渾河流域來定居。遷移之後女真形成建州三衛掠奪遼東都司和朝鮮邊境。女真的軍事力越來越強大，在正統時期竟威脅到通往遼東的朝鮮和明朝的使行路。朝鮮向明朝提出變更現有的使行路的要求。但是明朝却輕視朝鮮的關於使行路的變更要求，以防禦女真的威脅保護使行路為由，在連山關的通往鳳凰城的遼東八站，增建驛站和城堡來加強女真的防禦。

明朝為了防禦女真收縮了遼東邊境牆。雖然通過遼東邊境牆堅固了遼東都司的防禦線，但是遠不足防禦女真的侵入。特別是遼河套邊境牆在永樂以後防治到邊外，這造成了放棄明朝初期形成的遼河流域的廣闊的耕地面積，拉長遼河套防禦線的結果。因此兀良哈三衛等蒙古族自然地進入到遼河套地區，變成了威脅遼東北邊防禦體系地勢力。因接二連三的兀良哈的威脅，明朝內部提出多次把遼河套地區八百里凹字型防禦線縮成一字型的四百里防禦線的意見。但結果是財政的不足和蒙古族的侵入等多種原因而沒有實現，進而帶來了遼河套地區進一步受到兀良哈三衛侵入的結果。邊境牆除了防禦機能以外還有在衛所制度的崩潰等遼東防禦體系弱化當中防止遼東屯軍和屯民們流出到邊境牆外的蒙古女真地區的機能。

東西蒙古越來越向遼東擴大其實力。明朝正統年間之後，蒙古已侵入到海西女真地區，而海西女真被蒙古逼迫和兀良哈三衛一起侵入到明朝的遼東邊境。特別是西蒙古一也先對兀良哈三衛的攻擊正面的和想把兀良哈和女真拉攏到自己疆域的明朝政策發生衝突。當時，據遼東官員的報告，蒙古軍三萬來名侵入到遼東邊境，破壞驛站和城堡等80餘處和抓走1萬3千名左右。這樣的報告可以說明西蒙古攻擊遼東時的規模及力量之強大已達到相當地步。

當時，離北京不遠的大同地區也成為蒙古的主要攻擊對象，但也先抓走了明朝的英宗，還掠奪了明朝給予兀良哈和女真的敕書和印信，想獨占和明朝之間的經濟利益。即也先攻擊女真也許有政治目的，但主要的目

的還是在于先占經濟利益。

当然，蒙古勢力的變動對附近的女真地區帶來很大的影響。位于兀良哈東部的海西女真首先受到攻擊，建州女真也爲了避開蒙古勢力的攻擊南下。因此成爲威脅、掠奪遼東都司等變化遼東局勢的一个因素。

在遼東邊外，女真和蒙古聯合起來增強勢力、掠奪邊境地區時，明朝的遼東都司的力量却日漸削弱。軍事中樞的戰馬的數量逐漸減少，明朝后期還不到明朝初期的十分之一。

遼東人口在明朝中后期也越來越減少。遼東地區的官員隨意把軍隊驅使，甚至把屯田占爲私有土地，這些都促進了人口的流出。

永樂以后屯田也開始出現了問題。爲了開發屯田，明朝初期開始從朝鮮買賣了數万只的耕牛，送到各个遼東都司管轄衛促進屯田的開發。洪武永樂時期，因屯田開發帶來的努力，遼東都司管轄地區的屯田開發取得了很大的成果。但遼東屯田的發展，根据邊疆危机的深化因人口缺乏和土地的放弃、遼東軍官和官員們的土地私有、屯田軍的逃亡和驅使、明朝邊疆統治紀綱的松弛等原因引起了糧食不足的問題。

但是遼東都司的影響力已經喪失了其對內外的影響力。特別是對內外，蒙古和女真勢力的强大威脅到北邊和遼東。蒙古在明朝后期通過与明朝通婚的女真聯合攻擊遼東，進一步削弱遼東都司的勢力，而且女真代替遼東都司成爲遼東的主人。遼東東部女真地區已不是明朝邊境，成爲了遼東變化的中心地。反面遼東都司成了名存實亡的存在。

如上所述，兀良哈的南遷和女真的成長，成了明代遼東都司爲了遼東防禦而其改變戰略、修筑遼東邊疆的因素。但是，遼東都司的戰略變化未能得到太大效應。到了明代后期，遼東都司對遼東的支配權是很有限的。即兀良哈和女真，是遼東都司改變其防禦戰略的重要原因。遼東都司，即使改變其防禦戰略后，也對兀良哈和女真統制失敗了。

這樣，明代遼東都司支配權的限度，是成了后金迅速掌握遼東的一个原因。朝鮮也輕視遼東都司，而把女真視爲遼東的新興勢力。遼東都司作用之弱化和蒙古、后金的興起，使東亞社會進入了明清交替的變革時期。

關鍵詞: 遼東, 遼東都司, 遼東邊牆, 遼東八站, 建州女真, 兀良哈, 李滿住.